

# 劉河間の 運氣論과 그 運用에 관한 研究

李東鎬·朴贊國

I. 序論 .....	109
II. 研究方法 .....	110
III. 本論 .....	110
1. 河間 運氣學의 배경 .....	111
2. 河間 運氣學의 특징 .....	114
1) 새로운 運氣學을 주장 .....	114
2) 比物立象의 방법을 重用 .....	119
3) 標本의 파악을 重視 .....	121
4) 亢害承制論의 정립 .....	122
5) 燥病機를 추가 .....	124
6) 運氣學을 실제 臨床에 응용 .....	126
3. 河間 運氣學의 運用 .....	129
1) 현 시대의 運氣學 상황 .....	129
2) 현재의 環境과 火熱 .....	134
3) 현재의 成人病과 火熱 .....	136
4) 河間 火熱論의 臨床的 運用 .....	137
IV. 考察 .....	139
V. 結論 .....	143
參考文獻 .....	144

# 劉河間の 運氣論과 그 運用에 관한 研究

李東鎬·朴贊國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A study of Hagan's Ungi(河間運氣)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modern society

1. Ounyuikki(五運六氣) theory was first developed from observation of astronomical phenomena. Natural phenomena were explained and incorporated into the concepts of Yukki(六氣), and Ohaeng(五行, the concept that all matter in the world are comprised of five fundamental elements), during Chŏn-guk(戰國) and Han(漢) periods. In that period, Kanji(干支, the method to present time with ten and twelve different kinds of symbol's combinations) was used to record Ounyuikki(五運六氣). Theoretical study of Un-gi(運氣, the abbreviation of Ounyuikki) was almost completed in Un-gichilpyon(運氣七篇) of Naekyŏng(內經). Un-gi(運氣) theory was further studied and considered to be very important socially, as well as medically, in Tang(唐), Song(宋), Kŭm(金), and Won(元) periods. Hagan(河間) published various studies based on Un-gi(運氣) theory in Kŭmwon(金元) periods.

2. Hagan(河間) realized the limitation of a remedy method, of Sanghan(傷寒) theory. Therefore, he made an assumption that the prevalence of diseases in his period are closely related to Hwayŏl(火熱, a fire and a super-heat; two things out of Yukki(六氣)). His new theory was a result of the study on Kyŏngjon(經典, bibles of the oriental medicine) and the phenomena of nature.

3. Hagan(河間) used a combination of two basic theories of Pimuripsang(比物立象) and Hanhaesŭngjeron(亢害承制論) to make understood Hwayŏl(火熱) theory. Pimuripsang(比物立象) theory explains a method to appreciate the essence of things by comparing Sang(象, an expression of how something appears on the outside) and then making another Sang(象) from the comparison. Hanhaesŭngjeron(亢害承制論) is a theory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 balance of Yukki(六氣). It is that, if one of the elements is exceeded, other thing in the other five elements dominate the exceeded thing to control it for the balance between Yukki(六氣). In addition, he articulated P'yobon(標本, inside and outside of a thing) theory to differentiate the disease symptoms. These theories will help to distinguish real and fake symptoms of diseases, on which Hagan(河間) emphasized its importance.

4. Hagan(河間) published a new theory to explain Ounyuikki(五運六氣) theory based on the observation of the nature and the experience from medical practice. And he added Chobyŏnggi(燥病機, course and rule causing disease in dry conditions) to Pyŏnggishipkujo(病機十九條, nineteen course and rule causing disease), it strengthened Pyŏnggi(病機, course and rule causing disease) theories. Moreover, he utilized Un-gi(運氣) theory in a real life situation by applying Un-giron(運氣論) to diagnosis like Maekchin(脈診, a method to diagnose by taking the pulse) and to prescription.

## A study of Hagan's Ungi(河間運氣)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modern society

5. Modern society is an era in which it is hard to appreciate the principles of the changes due to the various unusual wea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 new paradigm using Un-gi(運氣) theory, like Hagan(河間) did in Kümwon(金元) period.

6. Unusual weather changes and the geriatric diseases such as cancer and diabetes, may have Sang(象) of Hwayöl(火熱) theory at the other side. These diseases have been and will create more serious problems in modern society. As a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it seems to be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and apply Hagan's(河間) Hawyöl(火熱) theory to modern society.

Key Words : Ounyuikki(五運六氣), Hanhaesüngjeron(亢害承制論), Pyönggishipkujo(病機十九條), Hagan's(河間) Hawyöl(火熱) theory.

접 수 : 2000년 10월 30일

채 택 : 2000년 11월 4일

교신저자 : 이등호·박찬국,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2-961-9183)

### I. 序論

사회는 대개 지식이 복잡해지고 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되면 한 사회 내에서 新舊의 지식과 가치가 뒤섞여 공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대개 과거로부터 전해진 어떤 공통된 지식이나 규범을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과 같은 학술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집단이나 학술계가 고도로 분화, 발전하게 되면 기존의 가치체계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거나 사회 구성원을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는 기존에 진리라고 믿어져왔던 하나의 지식이나 규범이 어느 한 개인의 발견이나 발명에 의해서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는 멘델이 유전법칙을 발견하여 당시 기독교 중심의 세계관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린 것이나,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하여 기존의 지구를 중심으로 인식되던 우

주관에서 탈피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들이 있다.

한의학계에도 그러한 사건들은 여러 번 있었다. 먼저 한의학적인 지식과 원리가 총결되어 있는 『內經』의 등장, 病因病機分野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傷寒論』의 著述, 그리고 運氣를 專論함으로써 기존의 의학관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킨 「運氣七篇」의 補入과 같은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金元時代 四大家의 등장 역시 앞서의 중대한 사건들에 못지 않은 것이다. 『四庫全書』에서 “儒之門戶分於宋, 醫之門戶分於金元”<sup>1)</sup>이라고 한 것은 이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진다.

金元四大家 중의 대표적인 사람은 劉河間이다. 그는 당시의 熱性 疾病 問題를 解決하였을 뿐 아니라 張從正 李東垣 朱震亨 등의 各家에게 많은 影響을 주었으며, 明清時代 溫熱病學에서 溫病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方法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河間이 의학을 할 당시에는 火熱한 성격의 疫病이 창궐하였으나 醫學界는 새로운 醫學理論의 創製를 등한시하고 局方의 활용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오직 溫熱한 方法을 사

1) 宋哲鎬, 河間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p.2. - 再引用.

용하는 데에만 빠져서 백성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河間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연을 관찰하고 經書를 연구하며 실제로 臨床을 한 결과로 대부분 병의 근본에는 火熱이 있다는 이론을 만들었다. 河間은 火熱論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이론적 근거가 運氣에 있다고 하고, 의사들이 醫學을 공부함에 있어 運氣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주에 존재하는 五運은 자체적으로 운동하여 六氣로 구현된다. 이러한 運氣는 자연계가 分化發展消滅하는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天氣와 地氣를 받고 태어나고 天地의 기운이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運氣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運氣가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역대의 醫家들은 運氣를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의학에서 運氣學이 운용되는 상황은 그리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일부의 의사들은 運氣를 치료에 실제로 운용한다고 하면서 干支의 기계적인 운용에 빠져서 發病한 날의 運氣를 加臨하여 나오는 결과에만 따르거나 病者의 생년월일에 따라서 盛하고 부족한 運氣를 구하고 그것으로 處方用藥하고 있다. 또 일부의 의사들은 運氣學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관념적 이론이라고 하여 그것을 공부하기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인 運氣의 운용은 한의학의 辨證原理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한의학의 많은 이론들이 運氣를 專論하고 있는 「運氣七篇」에서 나왔고, 劉河間張景岳 등의 많은 名家들이 자신들 醫論의 핵심을 運氣學으로 들고 있음을 볼 때, 運氣學은 반드시 연구해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現時代에는 수천년간 역사 속에서 벌어진 변화보다도 훨씬 많은 변화가 근 백년에 집중하여 일어났고, 그것이 자연계와 사람의 생활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연계에는 산업혁명 이후로 진행되어온 환경의 오염이 극에 달하여 이로 인한 온실효과, 삼림의 감소, 엘니뇨, 오존층의 파괴 등이 일어나 생태계가 크게 혼란되었다. 또한 인류에게도 최근에 들어서 뇌졸중·고혈압·당뇨병·악성 종양·AIDS 등이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로 발전된 현대 문명의

이기로 무정한 서양의학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응하는 運氣의 변화가 있다. 따라서 이 運氣를 파악하면 변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各家들의 運氣學說 중에서 河間의 이론이 火熱을 자연계의 변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본 것이므로 현대의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지구기온 상승이나 엘니뇨 등의 비교적 溫熱의인 성격을 띠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대개 陽盛陰虛한 病機로 발생하는 성인병의 발생원리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바, 河間의 運氣學說을 분석 연구하고 얻은 知見을 보고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본 논문에서는 河間의 運氣論을 연구하기 위하여 河間의 著作과 運氣에 관련한 각종 서적과 논문을 참고하였다. 河間의 著書로 현재 알려진 것은 『宣明方論』<sup>2)</sup>·『素問玄機原病式』<sup>3)</sup>·『內經運氣要旨論』<sup>4)</sup>·『保童秘要』·『靈秘十八方』·『素問藥注』·『素問病機氣宜保命集』<sup>5)</sup>·『三消論』·『傷寒標本心法類萃』·『傷寒直格』<sup>6)</sup>이다. 이 중에 『保童秘要』·『靈秘十八方』·『素問藥注』는 亡失되었다. 그러나 비록 이 三種의 서적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존하고 있을 지라도 『原病式』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것들이 河間이 親撰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이 河間의 著作을 밝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이들 서적들이 완전히 河間과 별개의 것은 아니므로 前述한 서적 전부를 본 논문의 대상으로 하였다.

## III. 本論

- 2) 이하 『宣明論』이라고 하였다.
- 3) 이하 『原病式』이라고 하였다.
- 4) 이하 『要旨論』이라고 하였다.
- 5) 이하 『保命集』이라고 하였다.
- 6) 이하 『直格』이라고 하였다.

## 1. 河間 運氣學의 배경

王琦 등에 의하면 運氣學說은 古代의 天文과 曆法으로 부터 말미암았다고 한다. 고대 중국에서 天文과 曆法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 사회가 농경사회로 자연기후를 파악하는 것이 사람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8)</sup>. 運氣에 관해서 고대의 서적들에 산재해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五行이나 六氣와 같은 이론적인 체계를 이용하여 재해석하는 것들이 있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는데서 벗어나 자연의 변화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史料의 부족으로 고대의 運氣學 발전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內經』에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즈음에 이르러서야 시간의 바뀜에 따른 자연계의 변화와 사람을 연관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정립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sup>9)</sup>.

『金匱真言論』<sup>10)</sup>과 『生氣通天論』<sup>11)</sup> 등의 早期篇章<sup>12)</sup>에서는 하루 중의 시간을 平旦·日中·黃昏·合夜·雞鳴 등으로 분리하여 시간에 따른 人體內的 생리적인 氣血陰陽의 변화를 인식하였다. 早期篇章에서는 또한 人體內的 病理와 시간과의 관계를 언급하여 『咳論』에서는 四季에 따라서 질병을 먼저 받는 臟器가 다르다고 설명하였고, 『金匱真言論』에서는 四時에 따라 多發하는 病과 病所를 설명하였고, 『臟氣法時論』에서는 五臟病의 생기고 심해지고 유지되고 낫는 것을 설명하면서 十干을 사용하여 고정된 시간으로 표현하였다<sup>13)</sup>. 이는 질

병의 發生과 微甚轉變이 시간에 따른 規律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早期篇章에서는 시간에 따른 養生法도 설명하여 『四氣調神大論』에서는 春夏에 陽을 기르고 秋冬에 陰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으며,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에 해당하는 生長化收藏의 변화에 따라서 人體도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sup>14)</sup>. 또한 시간과 治法을 연관시키는 구절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藏氣法時論』에는 의사가 人形을 통합하여 四時와 五行을 법칙으로 삼아서 치료한다는 구절이 있으며<sup>15)</sup>, 『四時刺逆從論』에서는 각 계절에 알맞은 刺法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떠한 폐해가 이르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니 이미 당시에 시간을 살펴서 치료에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言論 “東風生於春，病在肝俞，在頸項；南風生於夏，病在心俞，在胸脇，西風生於秋，病在肺俞，在肩背，北風生於冬，病在腎俞，在腰股，中央爲土，病在脾俞，在脊。故春氣者病在頭，夏氣者病在臟，秋氣者病在肩背，冬氣者病在四肢。故春善病筋脈，仲夏善病胸脇，長夏善病洞泄寒中，秋善病風痛，冬善病痺厥。” 『臟氣法時論』 “肝病者，愈在丙丁，丙丁不愈，加於庚辛，庚辛不死，持於壬癸，起於甲乙。……心病者，愈在戊己，戊己不愈，加於壬癸，壬癸不死，持於甲乙，起於丙丁。……脾病者，愈在庚辛，庚辛不愈，加於甲乙，甲乙不死，持於丙丁，起於戊己。……肺病者，愈在壬癸，壬癸不愈，加於丙丁，丙丁不死，持於戊己，起於庚辛。……腎病者，愈在甲乙，甲乙不愈，甚於戊己，戊己不死，持於庚辛，起於壬癸”

14) “春三月，此謂發陳，天地俱生，萬物以榮，夜臥早起，廣步於庭，被髮緩形，以使志生，生而勿殺，予而勿奪，賞而勿罪。……夏三月，此爲蕃秀，天地氣交，萬物華實，夜臥早起，無厭於日，使志無怒，使華英成秀，使氣得泄，若所愛在外。……冬至重病。秋三月，此謂容平，天氣以急，地氣以明，早臥早起，與雞俱興，使志安寧，以緩秋刑，收斂神氣，使秋氣平，無外其志，使肺氣清。……冬三月，此謂閉藏，水冰地坼，無擾乎陽，早臥晚起，必待日光，使志若伏若匿，若有私意，若已有得，去寒就溫，無泄皮膚使氣亟奪”

15) “合人形以法四時五行而治，何如而從，何如而逆。得失之意”

16) “春刺絡脈，血氣外溢，令人少氣，春刺肌肉，血氣環逆，令人上氣，春刺筋骨，血氣內著，令人腹脹。夏刺經脈，血氣乃竭，令人解休，夏刺肌肉，血氣內却，令人善恐，夏刺筋骨，血氣上逆，令人善怒。秋刺經脈，血氣上逆，令人善忘，秋刺絡脈，氣不外行，令人臥不欲動，秋刺筋骨，血氣內散，令人寒慄。冬刺經脈，血氣皆脫，令人目不明，冬刺絡脈，內氣外泄，留爲大痺，冬刺肌肉，陽氣竭絕，令人善忘。凡此四時刺者，大逆之病，不可不從也。反之則生亂氣，相淫病焉。故刺不知四時之經，病

7) 河間 運氣學의 배경이 되는 上古時代로부터의 運氣學의 역사적 흐름은 '王琦 等, 運氣學說的研究與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에서 골격을 취하였다.

8) 王琦 等, 上揭書, p.191.

9)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시기는 『運氣七篇』을 제외한 『素問』의 早期篇章이 저술된 때를 지칭한다.

10) “平旦至日中，天之陽，陽中之陽也，日中至黃昏，天之陽，陽中之陰也，合夜至雞鳴，天之陰，陰中之陰也，雞鳴至平旦，天之陰，陰中之陽也。故人亦應之”

11) “故陽氣者，一日而主外，平旦人氣生，日中而陽氣隆，日西而陽氣已虛，氣門乃閉”

12) 여기서 早期篇章이라고 함은 『素問』에서 『運氣七篇』을 제외한 나머지 篇章을 말한다.

13) 『咳論』“乘秋則肺先受邪，乘春則肝先受之，乘夏則心先受之，乘至陰則脾先受之，乘冬則腎先受之”，『金匱真

『內經』 중에서 비교적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運氣七篇」에서는 運氣에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고 광범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이 篇章들의 이론이 후대 運氣學의 근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五運六氣詳解與運用』<sup>17)</sup>을 살펴보면 運氣를 산출하는 방법과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현대적일 뿐이지 기본 내용은 「運氣七篇」의 것과 거의 같음을 볼 수 있다.

孟慶云은 이러한 「運氣七篇」에서 醫學氣象曆法를 시작하였고, 六氣로 因하여 질병이 발생한다는 說을 주장하였으며, 陰陽五行 운동을 五運六氣로 설명하는 氣化學說과 五運六氣에 관련된 새로운 病機學說을 제시하였고, 病因病機治療가 연결되는 계통적인 치료원칙을 논술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18)</sup>.

唐代에는 王冰이 「運氣七篇」을 注하여 『內經』에 補入한 이후로 運氣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영향으로 당시에 이미 運氣에 관한 數種의 서적이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전해지지 않고 『素問六氣玄珠密語』<sup>19)</sup>, 『褚氏滄書』등 몇 권의 서적이 전해지고 있을 따름이다.

『玄珠密語』를 살펴보면 運氣를 이용한 用藥이나 天文吉凶判定占術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서 당시에 運氣가 의학에 도입되어 실제 사용되는 내용이 前代의 것에 비해서 深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의학에 運氣理論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 褚澄은 歲·月·日·時·甲子乙丑의 차례와 天地의 五行寒暑風雨는 순식간에 변하는데, 사람이 그 氣에 접촉하게 되면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氣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運氣를 실제 질병의 치료에 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唐을 지나서 北宋 시대에 이르면 運氣學說이 學術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王琦 등에 의하면 당시에는 政府가 직접 運氣學說의 발전을 독려하였고, 徽宗과 같은 황제는 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聖帝經』을 지었는데, 중에 제 5편은 運氣에 대하여 專論하고 있다고 하였다<sup>21)22)</sup>

이외에 宋代에 運氣學이 유행하게 된 기폭제가 된 사건은 劉溫舒가 『素問入式運氣論奧』를 저술한 것이다. 序文에서 그는 “醫書라고 하는 것은 三墳의 經이다. 伏羲氏가 天文을 관찰하고 甲曆을 지었으며, 神農氏가 百藥을 맛보고 本草를 지었으며, 黃帝가 질병을 論하여 『素問』을 지었으나 그 道가 玄妙하여 쉽게 연구할 수 없다. 스스로 留心과 刻意가 아니면 어찌 玄機에 달하겠는가? 또 그 醫書 속에 기술된 六氣五運의 이론이 醫家에서 運用하는 補瀉의 要道가 된다. 비록 黃帝와 岐伯·鬼臾區가 問對하였으나 단지 문장이 섞이고 난잡하여 法을 이해할 수 없고,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 독자들이 쉽게 運氣를 깨닫기를 바램이니 한 번 이 글을 읽는다면 매우 빨리 運氣의 이치에 대해서 過半以上을 깨닫게 될 것이다”<sup>23)</sup>라고 하여 그 책의 성격이 運氣의 난해한 문제를 간단히 설명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劉溫舒가 이 책에서 運氣를 쉽게 설명한 이후로 運氣說은 민간에 더욱 많이 전파되어 성행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徽宗의 命으로 『聖濟總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만 보아도 北宋 政府의 運氣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聖濟總錄』에 관하여 王琦 등이 평가하길 “運氣에 대한 논술에서는 장차 六十年 기운의 성쇠, 客主加臨 등의 정황을 圓圖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중앙은 該當年의 大運과 그 盛衰를 표시하고, 다음은 客氣司天在泉左右間氣를 표시하고, 다음은 主氣六步의 對應起來를 표시하고, 가장 바깥쪽에는 二

之所生，以從爲逆，正氣內亂，與精相薄，必審九候，正氣不亂，精氣不轉”

17) 權依經·李民聽, 五運六氣詳解與運用, 서울, 醫聖堂, 1994.

18) 孟慶云, 論〈內經〉運氣學說對中醫理論的貢獻及其局限性, 河南中醫, 1981, 5期, pp.4~6.

19) 이하 『玄珠密語』라고 하였다.

20) 褚澄,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褚氏遺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547.

“歲月日時甲子乙丑次第，而及天地五行寒暑風雨倉卒而變，人嬰所氣疾作於身，氣難預期，故疾難預定，氣非人爲

故疾難人測推驗多桀拯救易誤”

21) 王琦 等, 上揭書, pp.228~232.

2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95, p.122.

23)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正統道藏中在), 서울, 法仁文化社, 1994, p.28595.

“夫醫書者乃三墳之經，伏羲觀天文造甲曆，神農嘗百藥制本草，黃帝論疾苦成素問，因知其道奧妙不易窮研，自非留心刻意豈達玄機，且以其間氣運最爲補瀉之要，雖備見黃帝與岐伯鬼臾區問對，分糝篇章卒無入法稍難施用……庶易曉晤，使覽者經日頓知妙道幾過半矣”

十四節氣를 배치하였는데 子·丑·寅·卯 등의 地支로써 月分을 표시하였다. 月分에 있어서 節氣와 主氣 兩圈의 사이에 六步를 나누어 각 氣의 위치한 氣候 特点과 災變을 밝혔다. 이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한 번 보고도 그 해의 六步六氣의 代置情況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다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림 아래의 문자로 설명하였다<sup>24)</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와 발간된 서적들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전반적인 의학계의 상황을 보면 運氣의 이론이 너무 어렵고 의사들이 그 이론을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제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北宋 때의 분위기는 계속 南宋과 金元時代로 이어졌다. 따라서 運氣理論의 연구가 비교적 깊어지게 되어 많은 의사들이 運氣를 이용하여 天地自然의 造化理致와 人體現象·疾病變化를 해석하였고, 病因·病機를 인식하는 것과 藥物을 쓰는 데에도 직접 응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를 즈음하여 河間이 활동을 하였다.

龔純·馬堪溫은 河間은 1120년에서 1130년 사이에 출생하여 1200년 좌우로 사망하였다고 하였다<sup>25)</sup>. 河間이 생존하던 당시는 중국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戰亂이 빈번하던 시기 중의 하나였고 더욱이 대부분의 전쟁에서 漢族은 패배하여 이민족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당시까지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충분한 영양을 취하지 못하고, 알맞은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갖은 노역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종 疫病이 발생하기 쉬운데, 당시에도 많은 熱性病이 창궐하였다는 기록이 『宋史』와 『金史』에 나와있다. 河間이 살던 지방은 중국의 북쪽이다. 李聰甫 등은 당시 북방의 사람들은 稟賦가 대부분 強하고, 식사로 牛羊의 乳酪과 膾와 구운 고기와 醇醲을 즐겨 먹어서 이것이 오래된 경우에는 蘊積하여 熱로 化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상과 같은 시대적·사회적 배경이 河間이 火熱論을 주장하게 된 주된 동기였다는 주장을 하였다<sup>26)</sup>. 『四庫全書』에서도 “그 持論이 대부분 寒涼한 약제로써 有餘한 邪氣를 공격하였으니 다 치료함에 주효할 수 있었다. 그

가 이 책을 지은 지역과 시대조건에 따른다는 하나의 뜻을 밝힌 것이니 선대 의사들의 미치지 못한 바를 보충한 것이다<sup>27)</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河間の 학설이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sup>28)</sup>.

河間の 서적을 살펴보면 이 당시의 사회상이나 運氣學의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다. 『原病式自序』에서는 河間이 의학을 펼칠 당시에 세상에 전하는 運氣의 책이 많으나 대개 大綱만을 들었으며, 배움의 門戶가 다 歌頌鈐圖<sup>29)</sup>일 뿐이어서 마침내 體用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運氣에 정통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함부로 運氣의 책을 지어서 세상에 전하여 『內經』의 요점을 아는 자가 드물게 되었다고<sup>30)</sup>, 당시 運氣學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같은 책의 다른 篇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養生의 방법으로 金石을 먹는 풍조가 만연하여 眞陰을 손상시키고, 내부에 熱을 쌓이게 하는 병폐를 이루는 경우가 많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sup>31)</sup>. 이것으로 판단할 때 河間이 의학을 펼칠 당시에 이미 고식적인 運氣의 說이 유행하였고 運氣로 惑世誣民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大熱한 藥物로 陽을 기르려고 하는 鍊功의 術數가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7) 劉河間,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素問玄機原病式,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703~704. “故其持論多以寒涼之劑, 攻其有餘皆能應手奏功, 其作是書, 亦因地因時各明一義 補前人所未及耳”

28) 李聰甫 等, 上揭書, p.5.

29) 노래부르고 외우며 정리해서 그림으로 그려 표현한다는 말이다.

30)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07.

“觀夫世傳運氣之書多矣, 蓋學大綱乃學之門戶, 皆歌頌鈐圖而已終未備其體用, 及互有得失而惑人志者也”

31)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p.730~731.

『原病式·火類』“但須臨時識其陰陽虛實, 則無橫天之寃. 慎不可妄以熱藥養其眞氣, 則眞氣何由生也. 故西山記曰, 餌之金石也哉, 熱耗其陰, 盛衰失常, 則邪熱燥其眞氣, 當有速亡之患. 內經言, 石藥發癲狂, 熱甚之所致也. 或欲以溫藥平補者, 經言積溫成熱, 則變生多疾, 故藥物不可妄服也. 夫養眞氣之法, 飲食有節起居有常, 不妄作勞無令損害, 陰陽和平自有益矣. 仙經雖有服餌之說, 非其人不可也. 況乎齊于氣味平和無毒之物, 但以調其氣爾. 眞修道者, 以內事爲功外事爲行, 非服餌而望成于道也. 故仙經又曰, 服餌不備五味四氣, 而偏食之久, 則府藏偏傾, 而生其病矣. 然則豈可誤服熱藥而求其益”

24) 王琦 等, 上揭書, p.236.

25) 龔純·馬堪溫, 民間醫生劉河間, 北京, 中華醫史雜誌, 1954, 3號, p.161.

26) 李聰甫 等,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서울, 一中社, 1983, p.5.

그러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한 것처럼 大熱한 藥物을 먹어서 道家에서 말하는 養神을 할 수 있는가? 河間은 당시의 의사들이 陰陽變化의 도리에 밝지 못하여 陽이 생을 주관한다고 하고 陰이 死를 주관한다고 하여 陽熱한 것만을 기르고자 하는 것은 陰陽의 말을 오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道家에서 말하는 養生하여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練功을 통하여 陰陽을 잘 조절하고 단련함으로써 그 결과 얻어지는 陽神을 취하되 陰體는 버리고 승천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陰陽의 개념은 死生有無動靜隱顯의 陰陽이나 당시의 민간에서는 이것을 寒熱을 뜻하는 陰陽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河間은 이런 이유로 당시의 사람들이 陽만을 목적으로 삼아서 鍊功하고 大熱한 藥을 먹어서 결국은 陰陽이 離決된 상태가 됨으로써 陽神만을 목적으로 삼다가 오히려 귀신이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하였다<sup>32)</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河間이 자신만의 독특한 학설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河間 運氣學의 특징

### 1) 새로운 運氣學을 주장

#### (1) 運氣의 중요성을 강조함

河間은 易은 五行八卦에, 儒는 三綱五常에, 醫는 五運六氣에 그 근본을 두고 있는 것으로 易儒醫가 모두 그 門이 다르지만 道는 하나라고 하였으니, 醫學의 가장 근본원리를 五運六氣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運氣는 萬物을 꿰뚫어보는 하나의 원리로서 運氣를 알게 되면 미래의 변화는 물론이고 과거의 변화까지도 推算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運氣를 잘 알아서 활용하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번영하고 만일 運氣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3)</sup>.

河間은 運氣의 道理가 治病함에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여 치료함에 運氣가 변화하는 이치를 파악하고 그 변화된 사항을 조절하여 주면 병이 낫게 된다고 하였다<sup>34)</sup>.

또한 河間은 運氣는 정확한 診斷을 내리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병이 아주 危劇한 지경에 이르면 陰證은 陽證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고, 陽證은 陰證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眞證과 假證을 辨別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河間은 이것을 五運六氣로 파악하면 복잡한 질병이라도 능히 그 실체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하였다<sup>35)</sup>.

이상에서 河間이 언급하고 있는 글은 『素問』의 「陰陽應象大論」과 「六節藏象論」에서 연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그가 『素問』의 運氣說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그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河間은 五行의 術數나 六氣의 化합은 만일 일상적인 道理를 벗어나게 되면 그 變化가 바로 外部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살핍으로써 病을 診斷할 수도 있으며, 正常을 벗어난 것을 바로잡아 줌으로써 疾病을 治療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6)</sup>.

위의 문장들을 살펴볼 때 河間은 診斷하고 治病 함

33)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04.

『原病式自序』, “易教體乎五行八卦, 儒教存乎三綱五常, 醫教要乎五運六氣, 其門三, 其道一, 故相須以用而無相失, 蓋本教一而已矣. …… 又云知其要者, 一言而終, 不知其要, 流散無窮, 又云至數之機, 迫迨而微, 其來可見, 其往可追, 敬之者昌, 慢之者亡”

34) 劉河間,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서울, 大星文化社, 1995, 18p.

“謹守病機, 各司其屬, 有者求之, 無者求之, 盛者責之, 虛者責之, 必先五勝疎其血氣, 令得調達而致和平, 此之謂也”

35) 葛雍 篇, 上揭書, pp.897~901.

“以至舉世皆云, 病之危極之時, 則陰陽反變而無能辨別也, 殊不知但以運氣造化之理推之, 則設若干變萬化而歸其要則一也, 何得有難易之二耶, 故經曰, 夫標本之爲道, 要而博小而大,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

36) 劉河間, 保命集, 上揭書, p.18.

“木水火土運行之數, 寒暑燥濕火風臨御之化, 則失道可見民病可調, 凡受諸病者, 皆歸於五行六氣勝復盛衰之道矣, 王注曰, 人生有形不能無患, 既有其患亦常有逃, 生化出陰陽者也”

32) 葛雍 篇,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傷寒直格,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869.

“俗醫不明陰陽變化之道, 而妄取陽主於生陰主於死, 而欲養於陽熱者, 殊不知此言, 自生之後以顯爲陽中生陰 故生者死之道也, 此古人之論道乃死生有無動靜隱顯之陰陽, 非言寒熱之陰陽也, 俗又妄言仙經云, 純陽升而爲仙純陰死而爲鬼, 因以養陽熱者亦不知此”

에 五運六氣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河間 運氣學에 대한 여러 醫家들의 견해

河間이 이와 같이 五運六氣를 자신의 각종 著作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여러 醫家들은 그의 運氣論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薛時平은 五運에는 大運과 小運<sup>37)</sup>이 있고 六氣에는 主氣와 客氣가 있는데, 대개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小運·主氣 때문이라고 하였다. 薛時平은 『內經』에 비록 客氣를 이용하여 질병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守眞이 그 내용을 실제로 臨床에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알고 小運·主氣만을 취하고 大運·客氣에는 미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였다<sup>38)</sup>.

任應秋는 河間이 小運·主氣는 취하였으되 大運·客氣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薛時平의 주장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任은 『要旨論』중 五行司化·六氣變用·抑拂鬱發·元相勝復·六氣氣候·通明形氣·法明標本·守正防危·九篇·并列五行生成數 등의 篇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保命集·氣宜論』에서 설명하고 있는 ‘五味五色所主·五藏所宜·五行之運行數’ 등의 구절을 보면 河間 運氣論의 범위가 확실히 大運·客氣까지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河間이 연구한 運氣論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하여, 運氣의 精義를 발휘한 것으로는 『素問要旨論』이 대표가 되고, 病機를 따라 運氣의 亢害를 발휘한 것으로는 『原病式』, 『傷寒直格』이 대표가 되고, 宋代 理學을 빌어 運氣를 말한 것으로는 『保命集』이 대표가 된다고 하였으니 任이 河間の 주요 세 가지 著作을 모

두 運氣를 중심으로 記述된 서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陳照甫는 河間이 厥陰·風木을 肝·膽에 연관시키고, 太陰·濕土를 脾·胃에 연관시키고, 少陽·相火를 心·包·絡·三焦에 연관시키고, 陽明·燥金을 肺·大腸에 연관시키고, 太陽·寒水를 腎·膀胱에 연관시켰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六氣는 六淫의 邪氣가 아니고 臟腑에 존재하는 本氣라고 하여 河間이 六氣를 六淫의 개념뿐만 아니라 체내의 정상기운으로도 해석하였다고 하였다<sup>40)</sup>.

劉樹農은 河間은 고정적으로 干支를 推算하여 診斷·治療하는 것을 반대하고 질병은 반드시 실제 임상과 결합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劉는 河間の 본 뜻이 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五運六氣를 강조한 것은 五運六氣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辛熱한 藥物이 善用됨으로써 민중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火熱論을 立論하되, 그 이론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시에 세상에 성행하고 있던 運氣說을 이용하였던 것이라고 하였다. 劉는 河間の 五運六氣 이론은 자연계의 외부 환경이 五行이나 정상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四時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변화하는 六氣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고정적인 干支에 관련된 산술적인 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sup>41)</sup>. 이는 劉가 河間이 運氣論을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위한 단순한 방편으로 사용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河間과 運氣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술들을 살펴보면 河間の 運氣論은 받아들이는 학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河間 運氣學의 연원과 개념분석

『原病式·自序』에서는 醫學이 伏羲로부터 根源하고, 神農에 이어진 다음 黃帝에 주입되어 萬世에 行해졌다고 하였다<sup>42)</sup>. 또 河間은 『要旨論』에서 성인의 서적에

37) 여기서 언급되는 小運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것은 1년 계절의 常令으로 五行生克 規律에 비추어보면 木에서 시작하여 水에서 그치며, 전례지는 것이 순서가 있어서 자연이나 인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이다.

38) 李仁述, 劉河間大小運氣儀, 中醫藥學報, 1984, 2期, p.27. - 再引用

“五運有大小, 六氣有主客, 大運統治一年, 小運各治七十三日, 主氣有定位之常, 客氣有加臨之變. 爲民病者小運主氣, 斷然可凭, 不中亦不遠, 其人受客氣, 經雖有言, 難于准用, 守眞所以獨取小運主氣, 而不及大運客氣者, 誠有見嚴此也. …… 讀者能知守眞獨取大運主氣之所以然, 則知大運客氣不足取”

39) 任應秋, 論河間學派, 浙江中醫雜誌, 1964, 6號, p.20.

40) 陳照甫, 論劉河間的臟腑六氣病機說, 上海中醫雜誌, 1982, 6期, p.38.

41) 劉樹農, 劉河間學說管窺, 上海, 上海中醫藥雜誌 1963, (2), p.34.

관해서 설명하면서, 伏羲氏의 『太始天元冊文』, 神農氏의 『本草』, 그리고 黃帝의 『內經』까지 三經을 이름하여 三墳이라고 하며, 모두 가르치는 本始가 되며, 萬法의 宗源이 되며, 진실로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43)</sup>. 이러한 문장들에서 河間이 스스로 그의 학술연원으로 『內經』을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河間の 제자인 馬宗素도 河間이 우연히 陳先生을 만나 仙酒를 마시고 취해서 素問玄氣를 깨닫게 되어 『原病式』 1권, 『宣明論』 5권, 『要旨論』 3권을 저술하였다고 했는데<sup>44)</sup>, 이는 馬가 河間の 대표적인 서적 3종이 모두 『內經』에서 연원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술들로 판단할 때 河間の 運氣論이 『內經』에서 연원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河間이 運氣를 論함에 인용한 문장을 살펴보면 『內經』이나 王冰의 注文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나 經典의 문구에 얽매이는 맹목적인 방식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要旨論 所在傍通』에서는 四時에 따라 나타나는 正常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內經』에서 말한 “太陰所至는 脈이 沈하고 太陽所至는 脈이 大而長하다”고 한 것은 틀린 것으로 이는 傳寫者의 잘못이며 校正補注한 者 또한 이러한 道에 밝지 않은 것이니, 그것은 土火의 성

질은 長遠하고 水性은 下流함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45)</sup>. 이 부분은 王冰도 太陰所至는 脈이 沈하고 太陽所至는 脈이 大長하다고注하고 있는 부분인데, 河間이 『內經』 原文과 王冰의 注文 모두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河間이 진실로 『內經』을 연구하고, 王冰의 注文을 많이 참고하긴 하였으나 스스로 主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傷寒直格并治小兒驚風』에서는 小兒의 驚風을 치료하는 方劑로, 黃連解毒湯을 제시하면서 『內經』에서 傷寒에 兩感한 자는 一日은 太陽과 太陰이 俱病하고, 二日은 陽明과 太陰이 俱病하며, 三日은 진실로 病寒이 된다는 등으로 설명하였으나, 經에서 말한 三日에 傳受한다고 하는 것은 대략의 法이므로 證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지 치료에는 반드시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sup>46)</sup>. 이 문장은 『內經』에서 傷寒病의 傳變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있으나, 그것의 참 뜻이 고식적으로 날짜를 쫓는데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河間이 질병을 대함에 症勢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뿐이지 지나가는 시간의 변화에 고답적으로 얽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宗全和는 河間이 『五運主病』에서 “大寒으로부터 春分까지 73일이 初之氣가 되어 風木之位이고, 春分에서 小滿까지가 二之氣가 되어 君火의 위치이다”라고 하였으나 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원래 五運의 시간 분포는 각각 73일을 主하는 것으로 五運 중에는 君火와 相火의 구분이 없고, ‘初之氣’, ‘二之氣’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大寒에서 春分까지, 春分에서 小滿까지라고 하였으니 그것을 계산하면 61일이므로 문장에서 설명하

42)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04.

“夫醫教者 源自伏羲, 流于神農, 注于黃帝, 行于萬世, 合于無窮, 本乎大道, 法乎自然之理. 孔安國序書曰, 伏羲神農黃帝之書, 謂之三墳, 言大道也, 少昊顓頊高辛唐虞之書 謂之五典, 言常道也”

43) 劉河間, 素問要旨論(河間醫集 中在),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3~4.

“故有祖聖伏羲占天望氣, 及視龍馬靈龜, 察其形象, 而密解玄機, 無不符其天理. 乃以始爲文字畫卦, 造六甲曆紀命曰太始天元冊文, 垂示之於後人也. 以誦神農, 昭明其道, 乃始令人食穀, 以嘗百藥, 而制本草矣. 然後黃帝命其岐伯及鬼臾區, 以發明太古靈文, 宣陳造化之理, 論其疾苦, 以著內經言. 凡此三皇三經, 命曰三墳, 通爲教之本始, 爲萬法宗源, 誠爲天之候也”

44)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5.

“今有劉守眞先生者, 曾遇陳先生, 服仙酒醉, 覺得悟素問玄機. …… 然先生談原病式一卷, 宣明論五卷, 要旨論三卷. 其原病式者, 明病機之本, 說六氣病源. 宣明論者, 精要醫方, 五運六氣用藥, 古往及今, 淵奧妙旨, 莫越於此也. 要旨論者, 素問隱微, 天地大紀, 人身通應, 變化殊途, 其理簡易, 其趣深幽, 惟此經釋, 爲龜鏡者也”

45)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112.

“然厥陰風木主肝, 故其脈弦, 少陰君火主心, 故其脈鉤, 太陰濕土主脾, 故其脈大而長, 少陽相火主心包絡, 故其脈大而浮, 陽明燥金主肺, 故其脈短而濇, 太陽寒水主腎, 故其脈沈. 經云太陰所至其脈沈, 太陽所至其脈大而長者, 誤也. 非謂古聖之誤, 乃傳寫者互書之過也, 乃校正補注亦不明斯之道矣. 不詳土火而長遠, 水性下流, 其義昭矣”

46) 劉河間, 傷寒直格, 上揭書, p.877.

“一日太陽與太陰俱病, …… 二日陽明與太陰俱病 …… 三日眞爲病寒而四逆湯 …… 但隨表與裏熱勢微甚以退其熱, 使無致熱極而死者是也. 若勢甚矣下者加大承氣湯下之愈, 夫經言此三日傳受亦大略之法也. 大抵宜隨證以施治亦不必拘也”

고 있는 것은 五運이 아니라 六氣인 것이다. 宗은 이러한 시간개념의 혼란은 서적 전각 상태나 인쇄상의 오류가 아니고 작자가 運氣와 시간의 관계를 그리 중요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宗은 劉河間이 小運과 主氣를 주장한 것은 물론이고 시간의 순서와 六氣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아도 河間の 運氣學說은 고대의 전통적인 이론과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이것은 河間の 運氣論이 干支에만 얽매인 고답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에서 출발한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47)</sup>.

실제로 河間の 저작을 살펴보면 그가 五運의 氣는 風暑濕燥寒이고 일년 중에 각 運이 73일 5각씩을 주하며, 각 運이 24節氣 중에서 주로 담당하는 기간이 있고<sup>48)</sup>, 또한 六氣도 여섯 가지 중에서 前三氣는 司天에 있고, 後三氣는 在泉에 있으며, 각 氣마다 담당하는 기간이 있어서 일년을 총 365일 25刻이라고 할 때 하나의 氣가 각각 60일 87.5刻씩 주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9)</sup>. 따라서 河間이 運氣의 시간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運氣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시간적 개념을 중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문장에서와 같이 시간 개념의 혼동이 존재하는 것은 宗全和의 의견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河間の 運氣論은 어떠한 것인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河間の 運氣論이 『內經』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運氣七篇』의 干支를 이용하여 질병의 發生微甚傳變을 설명한 부분만을 떠올린다면 河間の 運

氣論도 역시 干支를 운용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內經』의 五運六氣 이론이 모두 干支와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運氣七篇』에서 論하고 있는 일부분의 運氣說은 일년을 나누어 十干과 十二支를 배합하여 각각 主하는 부분을 구하고, 干支를 加臨하여 생리, 병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시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六微旨大論』에서 歲會·天符·太一天符·歲立·步의 推算法 등을 설명하는 부분이나 『六元正紀大論』에서 六氣가 司天할 때 각 년의 기후, 司天和 在泉의 氣가 주재하는 日時 등을 논술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고정되어 시간의 지배를 받는 면이 있다. 물론 각 天干과 地支에 따라 주관하는 五運과 六氣가 있으므로 각 干支마다 主가 되는 기운이 각각 달라서 그것이 사물과 인간에 영향을 줄 때 반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것이 극해되면 마치 그 時辰에는 主가 되는 한가지의 氣運만이 작용하여 用事하고 사물과 인간은 그것의 영향권 아래서 꼼짝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內經』에 있는 일부분의 내용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運氣를 설명하고 있다. 『五運行大論』에서는 天地陰陽은 數로써 미룰 수가 없고, 象으로써 하는 것이며, 그 象을 바라보면 비록 먼 것이라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sup>50)</sup>. 또한 『至眞要大論』에서는 時에 常位가 있지만, 氣에는 반드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였으니<sup>51)</sup>, 『內經』의 다른 부분에서는 運氣의 고정적인 推算을 경계하는 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王玉川은 『內經』의 이러한 설명은 먼저 天象을 관찰하고, 나중에 기후변화의 이치를 결합하여 運氣를 유추한 것으로 오직 干支로 추산하는 방식에만 집착한 것은 아니며, 後人들이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sup>52)</sup>. 楊力도 『運氣七篇』의 이론은 원래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

47) 宗全和, 從『素問玄機原病式』看劉完素的學術思想, 山東中醫學院學報 1981, (1), p.41.

48)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21.

“然歲中五運之氣者, 風暑燥濕寒各主七十三日五刻, 合爲期歲也. 歲中六部之主位者, 自大寒至春分屬木, 故溫和而多風也. 春分至小滿屬君火, 故暄煖也, 小滿至大暑屬相火, 故炎熱也, 大暑至秋分屬土, 故多濕陰雲雨也, 秋分至小雪屬金, 故涼而物燥也, 小雪至大寒屬水, 故寒冷也”

49)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p.50~54.

“凡初之氣, 自年前十二月大寒中氣日交當年初之氣分, 主六十日, 餘八十七刻半, …… 凡二之氣, 自春分中氣日交入二之氣分, 終於六十日, 餘八十七刻半, …… 凡六終之氣, 自小雪中氣日交入六之氣分, 終於六十日, 餘八十七刻半, 至大寒前六十日而有奇”

50) “天地陰陽者, 不以數推, 以象之爲也”, “仰觀其象, 雖遠可知也”

51) “時有常位, 而氣無必也”

52) 王玉川, 干支紀年與五運六氣, 北京中醫學院學報, 1991, 14卷 1期, p.10.

적이고 동태적인 것인데, 기존의 몇몇 醫家들이 運氣干支의 구조를 융통성 없게 臨床에 응용하여 運氣學說을 固着化唯心化시킨 것은 運氣學說 발전의 한 지류로서 고대의 순환론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運氣學說을 기형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비판하였다<sup>53)</sup>.

河間도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內經』의 運氣說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要旨論』이나 『傷寒直格』에서 天符歲會·同天符·同歲會 등을 論하고, 각 干支에 잘 발생하는 질병과 특정한 干支의 해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論한 부분이 있으나 『保命集』, 『宣明論』, 『直格』 등의 책에서 治法을 論하고 방제를 설명한 부분에서는 干支를 이용한 진단이나 치료는 구사하지 않고 있다. 이는 河間이 원론적으로 五運과 六氣가 자연계를 지배하는 구도에는 동의하였으나 실제의 운용 면에서는 十干과 十二支로 대표되고 이를 加臨하여 해당 氣運을 추산하는 일종의 시간적인 개념을 중시하는 형태의 運氣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가 말하는 運氣는 시간적인 성격과 함께 공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六氣가 자연계에 작용한 결과 나타나는 변화법칙을 의미한다. 『六元正紀大論』에서는 “風溫은 春化和 같고, 熱暈昏火는 夏化和 같고, 勝은 復과 같고, 燥曄煙露는 秋化和 같고, 雪雨昏暝埃는 長夏의 化和 같고, 寒氣霜雪冰은 冬化和 같으니, 이것이 天地五運六氣의 化이며, 更用盛衰의 常입니다”<sup>54)</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河間이 『要旨論』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장으로 그 내용은 六氣의 성격이 하나의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고 하는 공간속에서 그것과 비슷한 사물들을 類比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河間은 病機를 분류하여 火熱이 病變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俞慎初는 『原病式』의 病證을 분석하고, ‘火’와 ‘熱’의 病은 『素問』의 原文에 15種이 있는 것이 51種으로 推演되었으며, 其他의 病變

은 『素問』의 原文에 6種이 있는데 이것은 26種으로 推演되었고, 이 26種 中에는 風濕燥에 屬한 것이 14種인데 그것마저도 대개 熱에 屬한다고 설명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河間이 ‘風可化火’·‘熱蒸生風’·‘熱能生濕’·‘濕可化熱’의 이론을 주장하여 病變의 總數中 10種이 寒에 屬한 것을 除外하면 그 나머지 80% 이상은 모두 火熱에 屬한다고 인식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55)</sup>.

그런데 火熱의 기운은 十干 중에서 戊癸로 대표되는 天干으로 전체 五運 中 1/5이고, 十二支 중에서 六氣 中 子午에 해당하는 君火와 寅申에 해당하는 相火를 합쳐도 1/3에 불과한 것이나 어떻게 그처럼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 이것은 河間이 살던 당시의 실제 추산되는 運氣가 그러해서 客主加臨이나 歲氣를 論한 결과로 火의 범위가 이처럼 많아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식적인 방법으로 運氣를 算術한다면 火熱이 그처럼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河間이 주장하고 있는 運氣의 개념이 단순한 干支의 배합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주에는 五運이라고 하는 원리가 존재하며, 이 五運이 자체적으로 운동하여 그 결과 六氣로 생겨나는 것이 運氣의 기본 틀이다. 그런데 五運이 六氣로 구현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의 순서에 따른 규율이 존재한다. 六氣가 지상에 작용하는 규칙은 순서에 따라 각 氣마다 擔當하는 기간이 정해져있지만 한 기간이 끝나면 用事하던 氣의 작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火가 用事하는 기간이 끝나고 土氣가 用事하는 기간이 도래한다고 해서 火氣는 전혀 자취를 감추고, 土氣만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기간에는 土氣가 六氣 中의 대표가 되어서 변화를 주재할 따름이다. 만일 六氣가 지상에 작용하는데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식물·사람·흙·물·바람 등의 요소가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六氣는 각각 60日 87.5刻씩을 주재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우주적으로 보면 태양 흑점의 폭발, 태양계를 순환하는 혜성의 운동, 지축의 이동 등이 있고, 지구 내에서도 화산 폭발, 심각한 대기오염, 전쟁, 삼림의 파괴 등의 요인이 작용

53) 楊力, 中醫運氣學, 북경,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p.59~60.

54)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454.

“氣用有多少, 化洽有盛衰, 衰盛多少, 同其化也. …… 風溫春化同, 熱暈昏火夏化同, 勝與復同, 燥曄煙露秋化同, 雪雨昏暝埃長夏化同, 寒氣霜雪冰冬化同, 此天地五運六氣之化, 更用盛衰之常也”

55) 俞慎初, 河間學派開山-劉河間, 福建中醫藥, 1982, 4號, p.51.

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六氣가 지구에 1/6 씩의 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다. 어떠한 원인이든지 정상을 떠지 못한 六氣가 지구에 작용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는 정상적인 六氣가 작용하던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한 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변화를 五運六氣로 개괄하기 위해서라면 주위의 변화사항을 잘 살펴서 어떠한 氣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 정월 첫날의 새벽에 어떠한 氣가 用事하고 있는지를 살핀다고 하는 문구가 있고, 『素問·五運行大論』에서 象을 보아서 멀리 있는 것을 안다는 설명이 있는 것은 바로 運氣가 단순히 산술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을 잘 관찰하여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河間은 『保命集·傷寒論』에서 자신이 雙解·通聖과 같은 辛涼한 방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仲景의 法이나 桂枝麻黃의 方劑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난 척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아니며, 단지 그의 시대가 仲景의 시대와 달라서 五運六氣가 바뀌었으며, 世態居民이 변한 바가 있어서라고 하였다. 즉 그의 시대의 自然에는 火가 많았고, 사람은 動이 많아서 動은 陽에 속하고 靜은 陰에 속한다고 볼 때 火와 動이 많은 시절이므로 六氣 중에 火熱이 많은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sup>56)</sup>. 그렇다면 河間이 살던 시대의 運氣는 실제로 仲景 시대의 것과 다른 것인가?

運氣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는 十干과 十二支이고 이것으로 記時·記日·記月·記年하되 60년을 주기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반복된다. 따라서 干支로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6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運氣가 河間の 것과 仲景의 것이 다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河間은 왜 仲景 시대와 자신의 시대의 運氣가 다르다고 설명했을까? 두 가지 경우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仲景의 시대나 河間の 시대나 모두 60년을 主氣로 일정한 干支가 작용을 하였으나 仲景의 시대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서이든지 外部의 寒邪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많았으며, 河間の 시대에는 上述한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火熱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많았던 것이다. 河間の 시대를 지나서 清代에 이르게 되면 溫病學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도 당시의 醫家들이 河間の 火熱論에 바탕을 두고 당시에 유행하는 변화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 2) 比物立象의 방법을 重用

象이라고 하는 것은 現象·徵象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全知한 존재가 아니므로 발생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어떠한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外面의 象을 관찰하고 추리하는 과정을 밟기 마련이다. 『周易』에서는 “象을 관찰하고 사물의 법칙을 취한다”, “象을 관찰하여 시간의 변화를 알려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象이 일종의 思惟이고 사물을 관찰하는 수단과 방법임을 설명한 것이다<sup>57)</sup>.

五運은 우주에서 존재하는 원리이고, 이것이 스스로 운동하고 변화하여 그 결과 밖으로 드러난 氣가 六氣이다. 정상 또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六氣가 사물에 작용하게 되면 사물은 받은 六氣에 따라서 風化·熱化·火化·濕化·燥化·寒化 된다. 따라서 그 형태가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난 형상을 類比하여 해석하는 것이 比物立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象을 인지하고 분류하여 다시 새로운 象으로 취합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먼저 외부로 드러난 象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취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 취한 象들을 몇 개의 群으로 나눌 수 있는 가도 중요하며, 그 모아진 象들 집단의 공통적인 성질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이나 후대에 전할 수 있는 다른 象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실로 난해한 일이다.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은 『傷寒論』의 六經辨證, 本草學의 氣味論, 『內經』의 運氣理論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比物立象과 運氣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河間은 『原病式』에서 자연 현상이나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比物立象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

56) 劉河間, 保命集, 上揭書, p.11.

“余自制雙解通聖, 辛涼之劑, 不遵仲景法, 桂枝麻黃, 發表之藥, 非余自術, 理在其中矣. 故此一時彼一時, 奈五運六氣有所更, 世態居民有所變, 天以常火人以常動, 動則屬陽靜則屬陰, 內外皆搖, 故不可峻用辛溫大熱之劑, 縱獲一效其禍數作”

57) 楊力, 上揭書, pp.104~105.

하였고, 이 이치에 밝아서 比物立象의 방법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으면 자신의 著作에 언급한 질병의 이치를 잘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언급하지 아니한 내용도 모두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58)</sup>.

河間 比物立象의 이론을 이처럼 중시하였으므로 李蔚甫 劉樹農과 같은 醫家들은 比物立象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계의 五行과 六氣의 전변규율을 파악하고, 그것을 인체에 類比하여 사람의 生理·病理를 밝힌 것이 河間 運氣論의 특징이라고 하였다<sup>59)</sup>.

河間の 著作들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比物立象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물의 변화된 상태나 질병을 火나 熱의 성질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原病式·火類』에서는 “말은 心의 소리가 되고 罵詈는 말 중에 惡한 것이다. 水의 數는 一이니 道에 가깝고 善하다. 火의 數는 二이니 道에 멀고 惡하다. 水는 안은 清明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며, 器의 모남과 등금과 物의 氣味와 五臭·五色을 쫓아서 어기지 아니하고 靜順하여 민을 수 있으며 潤下하여 萬物을 善利하게 하며 濁穢를 씻어서 淸靜하게 한다. 따라서 지극히 善한 것은 水와 같다고 하며, 水와 火는 상반되는 것이니 지극히 어리석기는 火와 같다고 한다. …… 水가 善하고 火가 惡함을 안다. 만일 病이 陽盛하고 陰虛하면 水가 弱하고 火가 强하여 金을 制約함으로써 能히 平木하지 못하면 善이 去하고 惡이 發하여 罵詈함에 親疏를 가리지 않으며, 喜笑恚怒하여 미친 것 같으니 이는 본래 火熱이 生한 바다. 平人이 性내고 욕하는 이치는 또한 이와 같다. 또한 本心이 즐거워서 怒함이 없으나 戲弄의 욕을 하는 것도 역시 心火의 작용이다”라고 하였다<sup>60)</sup>. 이 문장에서는 水는 착하고 火는 나쁘다.

따라서 親疎를 구별하지 못하고 욕을 하는 것은 火熱로 인한 바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어찌 자연계에 존재하는 水가 착한 것이고 火는 나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이는 단지 水와 火의 物象을 比類하여 착하고 나쁘다는 것으로 설명한 比物立象의 구절이라고 하겠다.

『原病式·熱類』에서는 “驚은 心이 갑자기 動悸하고 不安하지 않은 것이다. 火는 動을 주관하므로 心火熱이 甚함이다. 단지 熱이 裏에서 極하게 되면 火가 極하여 水와 유사하게 되니 驚을 잘한다. ……惑은 疑惑하고 예측하는 바가 흐리며 어지러워서 뜻이 한결같지 않은 것이다. 火가 가지런하지 않아서 惑亂하는 모양과 같다. 따라서 火가 實하면 水가 衰하여 뜻을 잃고 惑亂한다”<sup>61)</sup>라고 하였다. 이는 驚과 惑의 불안하고 안정부절 못하는 모양과 火의 활발한 움직임을 比類하여 설명한 것이다.

『傷寒直格』에서는 黃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黃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濕熱氣로 黃疸이 되는 것으로 보리가 패었는데 비가 와서 濕熱이 過極하게 되면 黃疸이 되는 것과 홍수가 나서 물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天氣가 濕熱하면 草木이 장차 죽으려고 色이 黃色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혹 病으로 血液이 衰하여 虛한대 燥熱이 太甚하여 몸과 얼굴이 萎黃하는 자는 지나치게 가물어서 草木이 萎黃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sup>62)</sup>. 이는 黃疸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얼굴이 萎黃해지는 증상과 六淫

濁穢以淸靜。故上善若水。水火相反，則下愚如火也。……是知水善火惡。而今病陽盛陰虛則水弱火強，制金不能平木，而善去惡發，罵詈不避親疎，喜笑恚怒而狂，本火熱之所生也。平人怒罵亦同，或本心喜而無怒，以爲戲弄之罵亦心火之用也。故怒罵者亦兼心喜屬於人也。怒而惡發可噴者內心喜欲怒於人也”

58)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08.

『原病式·自序』“況乎造化玄奧之理，未有比物立象以詳說者也。……遂以比物立象，詳論天地運氣造化自然之理二萬餘言，仍以改證世俗謬說。雖不備舉其誤，其意足可明矣。雖未備論諸疾，以此推之則識病六氣陰陽虛實幾於備矣。蓋求運氣言象之意而得其自然神妙之情理”

59) 陳和亮, 劉完素學術思想近三十年研究概況, 上海中醫雜誌, 1988, 10期, p.41.

60)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p.726~727.

“言爲心之聲也，罵詈言之惡也。夫水數一道近而善，火數二道遠而惡。水者內淸明而外不彰，器之方員，物之氣味，五臭五色從而違，靜順信于，潤下而善利萬物，滌洗

61)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23.

“驚心卒動而不寧也。火主于動，故心火熱甚也。雖爾止爲熱極於裏，乃火極似水則喜驚也。……惑疑惑猶預濁亂而志不一也。象火參差而惑亂，故火實則水衰，失志而惑亂也”

62) 葛雍 篇, 直格, 上揭書, p.894.

“凡諸黃者有二，一則濕熱氣而黃，萬物皆然，又如麥秀而黔雨濕熱過極則黃疸者也，及水滯而天氣濕熱則草木將死而色變黃者也。或病血液衰則虛燥熱太甚而面痿黃者，猶亢旱而草木萎黃也。夫病燥熱而黃者，當退熱潤燥而已。此傷寒濕熱極甚而發黃者，開結退熱雙利大小腑以制水濕，則利和而愈也”

중에서 燥熱이 用事할 때 자연계에 나타나는 草木이 萎黃해지는 상황을 比類하여 설명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河間의 著作 중에서 '比物立象'의 방법으로 자연계에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니, 河間이 이 이론을 중심으로 그의 醫論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 3) 標本의 파악을 重視

標本·中氣의 개념은 『內經』의 「至眞要大論」이나 「六微旨大論」 등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론으로 運氣學에서 六氣와 三陰三陽의 개념이 연결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河間은 그의 著書 여러 곳에서 그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河間은 의학에 있어 標와 本을 파악하여 실제로 治病에 활용해야 하며, 그에 알맞은 治法을 구사해야 함을 강조하여 標本の 道는 요약되면서도 넓고 작으면서도 커서 가히 하나를 말하여 百病의 綱을 알 수 있고, 標와 本은 말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미치기는 어려운 것이고, 本과 標를 살피면 氣를 가히 조절할 수가 있으니 勝復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위한 법을 삼으면 하늘의 道가 마치게 된다고 하였으며 標本을 알지 못하는 것은 妄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63)</sup>. 이 문장은 『原病式』, 『要旨論』을 비롯한 거의 모든 河間의 著作 중에서 記述되고 있는 것으로 그가 標本の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六氣標本은 따르는 바가 달라서 六氣 중에서 少陽太陰은 本을 따르며, 少陰太陽은 本을 따르기도 하고 또 標를 따르기도 하며, 陽明厥陰은 標本을 따르지 않고 中을 따른다. 河間은 그 원리를 분석하여 少陽의 本은 熱이고 標는 陽이며 太陰의 本은 濕이고 標는 陰이니 本末이 같아서 本을 따르는 것이며, 少陰은 本은 熱이고 標는 少陰이며 太陽은 本은 寒이고 標는 太陽이니 本末이 달라서 本을 따르기도 하고 혹, 標를 따르기도 하며, 陽明厥陰은 標本을 따르지 않으니 다 中氣에 따른다고 하였다<sup>64)</sup>. 王冰도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少陽

과 太陰은 本末의 陰陽屬性이 동일하므로 本을 따라서 病이 발생하고, 少陰과 太陽은 本末의 陰陽屬性이 相異하므로 本을 따르고 標를 따르며, 陽明之中인 太陰과 厥陰之中인 少陽의 本末과 本을 지키는 것의 陰陽屬性이 같아서 標本을 좇지 않고 中氣를 좇아서 病이 발생하게 된다고<sup>65)</sup> 河間과 비슷하게 설명하였다<sup>66)</sup>.

河間은 標本の 이론을 실제 治病하는 면에도 사용하여 百病의 시작은 本에서 生하는 것이 있고, 標에서 生하는 것이 있고, 中에서 生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잘 파악하여 각각의 상황에 적절한 治法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治病하는데 있어 標本을 구할 수 있으면 만 가지의 경우에도 治法을 잘 적용시킬 수가 있고, 標本을 구할 수 없으면 治法이 잘못되기 쉽다고 하였다<sup>67)</sup>.

그렇다면 이러한 標本·中氣의 개념과 河間의 運氣說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선 먼저 『內

64)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p.63~64.

“少陰太陽有標本之化, 然少陰本熱, 其標少陰也, 太陽本寒, 其標太陽也, 遂從標從本之化也, 太陰少陽從本, 然太陰之本濕, 其標陰, 少陽之本熱, 其標陽, 故各從其本化也, 陽明厥陰不從標本, 皆從乎中氣, 陽明其本燥, 標爲陽, 其性涼, 清化涼, 與標本不同, 而反同其太陰濕土也, 又厥陰不從標本, 而反從乎中氣矣”

65) 王冰,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293.

“少陽之本火太陰之本濕本末同故從本也, 少陰之本熱其標陰太陽之本寒其標陽本末異, 故從本從標, 陽明之中太陰厥陰之中少陽本末與守本同, 故不從標本從乎中也, 從本從標從中皆以其爲化主之用也”

66) 陽明之中인 太陰 같으면 太陰의 本은 濕土이고 標는 太陰 즉, 陰이므로 本末이 모두 陰이 된다. 陽明은 陽에 속한 것이므로 그것의 본성은 陰이 되어 陽明의 本을 지키는 것이 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陽明之中인 太陰의 本末과 本을 지키는 것의 陰陽屬性이 같으므로 陽明은 中氣를 좇아서 病이 발생하게 된다. 厥陰之中은 少陽으로 少陽의 本은 相火이고 標는 少陽 즉, 陽이므로 本末이 모두 陽이 된다. 厥陰은 陰에 속한 것이므로 그것의 본성은 陽이 되어 厥陰의 本을 지키는 것이 陽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厥陰之中인 少陽의 本末과 本을 지키는 것의 陰陽屬性이 같으므로 厥陰도 역시 中氣를 좇아서 病이 발생하게 된다.

67)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p.163~164.

“百病之起, 有生於本者, 有生於標者, 有生於中者. 有其在表而求之於標者, 有其在本而求之於本者, 有其在表而求之於標, 有其在表而求之於本. …… 知逆與從, 正行無間, 知標與本, 萬舉萬當, 不知標本, 是爲妄行”

63) 이 문장은 「至眞要大論」 “夫標本之道, 要而博, 小而大, 可以言一而知百病之害, 言標與本, 易而勿損, 察本與標, 氣可令調, 明知勝復爲萬民式, 天之道畢矣”과 「標本病傳論」 “不知標本, 是謂妄行”에서 인용하여 논술한 것으로 보인다.

經』에서 말한 風寒暑濕燥火의 六氣는 本의 氣이고, 三陰三陽은 標의 氣이며, 中氣는 標氣와 表裏 相合 관계에 있는 것임을 파악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五運의 기운이 자체적으로 운동한 결과로 六氣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六氣야말로 人體의 成長發育, 疾病과 自然의 生長收藏의 변화에 가장 주된 요인인 것이다. 三陰三陽은 本氣인 六氣의 消長이 자연이나 인체에 일련의 群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三陰三陽이 本인 六氣에 대응하는 標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근본이 되는 六氣와 그것이 작용하여 드러난 三陰三陽을 파악하면 변화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4) 亢害承制論의 정립

河間을 중심으로 주로 寒涼한 藥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유파를 河間學派寒涼派主火派라고 한다. 이 중 主火派라는 이름은 河間이 질병의 원인을 주로 火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河間이 火熱 理論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至眞要大論』의 十九病機論이다. 河間은 十九病機에 존재하는 六氣 중에서 火와 熱이 제일 수가 많은 데에 근거하고, 또한 火와 熱을 제외한 다른 四氣도 亢害承制論이나 五行相生相克理論을 통하여 火와 熱로 관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亢害承制論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六微旨大論』에서는 “亢則害承乃制, 謂己亢過極, 則反似勝己之化也”라고 하여 한 物이 지나치게 亢盛되면 그것을 克할 수 있는 氣가 나타나는 것이 亢害承制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五臟 사이의 관계는 生克乘侮가 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五行의 生克乘侮로서는 자연계의 天氣와 臟器의 복잡한 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반해 運氣의 ‘亢害承制’는 이러한 관계를 잘 대표할 수 있다. 運氣의 亢害承制와 五行의 生克乘侮는 모두 五臟 사이의 依存制約하는 관계를 반영하는 두 개의 틀이지만 生克乘侮는 五行을 기초로 하고, 亢害承制는 六化가 핵심이 된다. 즉 亢害承制는 六化의 사이가 서로 제약하여 臟器 사이에 복잡한 의존관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체 내에 불안정한 氣化 요소가 자체 내에서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68)</sup>.

河間 이전에 王冰이 亢害承制의 원리를 설명하였으

므로 亢害承制論을 河間만이 專論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러나 河間은 亢害承制의 원리를 민활하게 발휘하여 火熱論을 제시함으로써 한의학의 病機 分野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의 주요한 이론 중의 하나로 亢害承制論을 든다고 하여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다.

河間의 亢害承制論과 王冰의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趙學俊은 劉河間이 王冰注文 안에 있는 亢害承制說을 발전시켜 자신의 독특한 說을 이루었다고 설명하면서 “王冰의 亢害承制說은 『內經』의 이론을 이어받고 있다. 王冰은 각종의 정상적인 자연 현상이 모두 ‘承制’의 이치에 깃들여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자연의 모든 현상은 모두 내부에서 스스로 제약하고 조절한 결과이며 일정한 법칙이 있다고 한 것이다. 王冰은 亢害承制가 만물이 生化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만일 相乘하지 못하면 制約함이 없어서 반드시 過亢이 되어 害가 된다고 설명하고, 亢害承制의 이론을 자연현상과 연관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정상적인 자연현상은 生化와 制約의 相反된 작용에 의하여 상대적 평형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王冰의 亢害承制論의 요점은 자연현상을 통해 承制가 生化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니 후대의 劉河間 등의 많은 醫家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sup>69)</sup>”라고 하였다.

河間이 사용한 亢害承制論은 鬱復의 개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木氣가 亢하면 木이 克하는 土氣를 過多하게 抑制하므로 土가 자신의 자식인 金氣에게 도움을 구하고 金氣가 木氣를 克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상황이나 증상은 마치 金氣가 크게 행하여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상황이 어떠한더라도 過亢하여 制化를 받아서 드러난 현상은 실제 運氣가 그러한 것이 아니고 假象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질병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任應秋는 그의 논문에서 河間의 서적 중에서 運氣의 亢害를 잘 발휘한 서적이 『原病式』과 『傷寒直格』이라고 하였다<sup>70)</sup>. 『原病式』을 예로 들어보면 본문에서 河

68) 楊力, 上揭書, p.103.

69) 趙學俊尹錫烈, ‘亢害承制論’의 發展過程과 意味에 대한 諸家說의 研究, 서울, 원전의사학회지, 1998, Vol. 11, No.1, pp.74~76.

70) 任應秋, 上揭書, p.20.

間이 亢害承制의 이론으로 설명한 부분은 모두 27 곳이다. 그 내용을 분별해보면 첫째 穀肉菓菜와 같은 것들이 熱極하면 腐爛해서 水로 化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sup>71)</sup>, 둘째 風病에 緊斂短縮勁切의 症이 나타나는 金이 化한 증상<sup>72)</sup>, 셋째 熱病에 黑色을 보이는 것<sup>73)</sup>, 넷째 寒이 因래 閉塞을 主하는 것인데 熱이 極하면 오히려 閉塞하고 通暢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sup>74)</sup>, 다섯째 熱病에 寒證을 나타내는 것<sup>75)</sup>, 여섯째 熱病에 腎水의 志인 驚恐이 나타나는 것<sup>76)</sup>, 일곱째 濕이 過하여 風證인 諸瘕強直이 나타나는 것<sup>77)</sup>, 여덟째 寒類에서 水氣가 強해서 堅硬如地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78)</sup>. 이러한 예로 볼 때 河間이 각종 病機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亢害承制論을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傷寒直格戰汗』에서는 “經에 말하길 水가 發하여 우박과 눈이 되는 것은 水寒亢極한 것으로 도리어 水極하여 土化한 것과 같은 것이니, 이를 일러 兼化라고 한다. 故로 病寒이 極하면 도리어 堅滿한 것이 된다. 무릇 土는 흐림과 눅눅함-구름-비를 主하며 安靜한 것인데 雨濕이 極甚하면 회오리바람이 급작스럽게 불어서 흩어 버리고 떨어뜨리니, 이는 도리어 風을 兼하여 土濕을 制한 것이다. 故로 經에서는 瘕를 濕이 極하여 도리어 風이 強한 것처럼 된 病이라고 하였다. 木은 生하고 榮하는 것을 主하는 것으로 봄에 旺하고, 그 氣는 濕하되 그 本은 風이다. 風이 大하면 도리어 涼하여 毀折한다. 이는 金化를 兼하여 그 本을 제약하는 것이다. 고로 風病이 過極하면 中外가 燥澁하고 皮膚가 皴揭하니 이는 氣의 운행이 燥澁하게 됨으로서 筋脈이 瘦緩한 것이다. 이는 도리어 金化를 겸한 것이다. 金은 秋를 主하여 陰에 속하고 그 氣가 涼하다. 涼이 極하면 天氣가 清明하고 萬物이 도리어 燥한다. 燥物은 火만 같지 않으니 金極하면 도리어 火化한 것을 兼하여 制約하게 된다. 故로 病이 들어서 血液이 衰少한데 燥金之化가 極甚하면 도리어 熱이 된다. 燥物은 火만 같지 않음이니 夏月에 火盛하여 熱이 極甚하면 天氣가 噤味하나 萬物이 도리어 潤하는 것은 水液이 出하기 때문이니 나무에서 津液이 흐르는 것과 같다. 體熱이 極하여 도리어 汗液이 出하는 것은 火로 金을 煉하여 熱極하면 도리어 水가 되니 火極하여 水化를 兼함으로써 制한 것이다. 故로 病이 들어 熱極하면 도리어 五濕이 出하고, 婦人帶下가 淋瀝하고, 厥逆身冷하거나 혹 惡寒戰慄하거나 혹 冷痛한다”<sup>79)</sup>라고 하였다. 이 문장은 『傷寒直格』에서 亢害

71)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10p.718p.719.

『原病式五運主病』“猶穀肉菓菜, 至于熱極, 則腐爛而潰爲汗水也. 潰而腐爛者 水之化也. 所謂五行之理, 過極則勝已者反來制之, 故火熱過極則反兼於水化”, 『原病式熱類』“飢者鼻出清涕也, 夫五行之理微則當其本化, 甚則兼有鬼賊, 故經曰亢則害承乃制也”

72)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11.

『原病式風類』“經戾經縮也, 戾乖戾也, 謂筋縮裏急, 乖戾失常而病也. 然燥金主於緊斂短縮勁切, 風木爲病反見燥金之化, 由亢則害承乃制也”

73)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13p.728.

『原病式熱類』“至若痢色黑亦言爲熱者, 由火熱過極則反兼水化制之, 故色黑也”, 『原病式火類』“凡色黑齒槁之人, 必身瘦而耳焦也. 所以然者, 水虛則火實, 而熱亢極則害承乃制, 故反兼水之黑也”

74)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18.

『原病式熱類』“如火煉物, 熱極相合而不能相離, 故熱鬱則閉塞而不通暢也, 然寒水主于閉藏, 而今反屬熱者, 謂火熱亢極則反兼水化制之故也”

75)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16p.717p.720.

『原病式熱類』“凡鬱結甚者, 轉惡寒而喜暖, 所謂亢則害承乃制, 而陽極反似陰者也”, 『原病式熱類』“大法煩躁多渴, 欲寒惡熱爲病熱也. 亦有亢則害承乃制之, 則病熱甚而反覺其冷者也, 雖覺其冷而病爲熱實非寒也. 其病熱鬱甚而反惡寒”

76)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23.

『原病式熱類』“止爲熱極於裏, 乃火極似水則喜驚也. 反兼腎水之恐者, 亢則害承乃制故也. 所謂恐則喜驚者, 恐則傷腎而水衰, 心火自甚故喜驚也”

77)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25.

『原病式濕類』“陰瘕曰柔瘕, 陽瘕曰剛瘕, 亢則害承乃制, 故濕過極則反兼風化制之. 然兼化者虛象, 而實非風也”

78)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39.

『原病式寒類』“臍腹中堅硬, 按之應手謂之癥也. 聖惠方謂癥猶微也. 然水體柔順, 而今反堅硬如地, 亢則害承乃制也”

79) 葛雍 篇, 直格, 前揭書, pp.897~898.

“又經曰水發而雹雪是水寒亢極, 而反似極水之土化是謂兼化也, 故病寒極者反堅滿也, 夫土主濕 黔雲雨而安靜雨濕極甚則飄驟散落, 是反兼風制其土濕也, 故經言瘕爲濕極而反似風強病也, 木主生榮而王於春, 其氣濕其本風風大則反涼而毀折, 是兼金化制其本也, 故風病過極則中外燥澁皮膚皴揭反氣運行之燥澁而筋脈總緩, 是反兼金化也, 金主於秋而屬於陰, 其氣涼極則天氣清明而萬物反燥, 燥物莫若火是金極反兼火化制之也, 故爲病血液衰少燥金之化極甚則反熱也, 燥物莫若火夏月火盛熱極甚, 則天氣噤味而萬物反潤以出水液林木流津, 及體熱極而反出汗液以火煉金熱極, 而反化爲水是火極而

承制를 論한 대표적인 문장으로 風寒暑濕燥火 각각의 六氣가 亢害承制 하면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河間의 亢害承制 이론에 대하여 李聰甫 등은 亢害承制論은 일종의 자연조절작용으로 『內經』에서는 亢이 있으면 반드시 承이 있어 이미 亢害에 이르게 되면 必然的으로 '熱極生寒'·'寒極生熱'·'重陰必陽'·'中陽必陰'과 같은 種類의 承制하는 一面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河間이 強調한 亢害承制는 實際的으로 六氣가 亢盛하는 病變이 있어서 一定 程度에 도달하면 一種의 假象이 출현하는 것이며, 이는 진짜로 반대의 氣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假令 亢害가 이미 經過해서 承制에까지 이르면 病情은 마땅히 好轉되고 或은 制가 過甚하면 病變의 性質이 이미 轉化하여 相反된 一面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李는 河間의 亢害承制論이 辨證과 疾病의 原因·病機 그리고 邪正盛衰의 相互關係를 分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內經』의 가르침을 發揮한 하나의 커다란 進歩라고 평가하였다<sup>80)</sup>.

河間이 亢害承制論을 이처럼 강조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比物立象이나 標本을 강조한 진술을 한 것과 관련이 깊다. 河間은 수년간의 臨床經驗을 통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經典을 연구하여 당시에 자연이나 인체에 발생한 질병에 火熱的인 요소가 많다고 파악하였다. 『原病式』의 序文에서 河間은 『內經』의 277字에서 起因하여 『原病式』을 지었다고 설명하고 후세의 학자들도 『原病式』에 설명된 질병은 『內經』에서 기술된 것으로 河間이 그것을 五運六氣 病機의 원리에 따라 확대하고 재배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原病式』등의 서적에서 서술되고 있는 질병 중에 火熱的인 원리로 설명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그 질병들을 살펴보면 당시 의학계에서 이미 火熱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인식되던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분명히 火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던 질병을 河間은 火熱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질병으로는 白帶下瀉黑中風癩疝 등이 있다. 河間은 臨床에서

이러한 병이 실제로 火熱的인 원인에서 발생함을 보았음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에 寒涼한 治療法을 가하여 治療하고 이를 제자나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납득할만한 무언가 다른 이론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동원된 것이 亢害承制論이다. 李聰甫 등의 후대 醫家들은 河間의 運氣病機論의 핵심을 '六氣皆從火化'와 '五志過極皆爲熱病' 이론으로 보는데, 그리 많은 횡수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 病機 理論의 가장 난해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亢害承制論이므로 河間 病機學에서 亢害承制論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 5) 燥病機를 추가

『素問·至眞要大論』의 19病機 중에서 燥에 관련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宣明論·燥門』에서는 "經曰, 諸澁枯涸乾勁皴揭皆屬於燥"라는 구절이 있어서 마치 그 문장이 원래 『內經』에서 출전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은 河間이 六氣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燥를 중요하게 여겨서 기타 五氣와 함께 重論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河間은 六氣를 陰과 陽으로 구별하여 風熱火는 모두 陽이고, 寒濕燥는 모두 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燥를 論함에 있어서 그 氣는 비록 秋陰에 속하지만 그 성질은 寒濕과 다르고 도리어 風熱과 같다고 하여 燥가 비록 陰에 속하는 것이나 火熱과 연관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六氣가 인체에 작용하게 되면 변화하는 脈의 象을 보아도 燥濕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燥金은 緊斂을 주관하니 가을에 나타나는 정상 脈象은 緊細하고 微하며, 濕土는 縱緩을 주관하니 六月에 나타나는 정상 脈象은 緩大하고 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河間은 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燥의 원리는 땅에 수분이 많으면 윤택하고, 乾燥하면 딱딱하고 潤氣가 없어서 갈라지는 현상과 比類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81)</sup>.

81)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286.

"風熱火同陽也, 寒濕燥同陰也. 又燥濕小異也. 然燥金雖屬秋陰, 而異于寒濕, 故反同其風熱也. …… 天地相反, 燥濕異用. 故燥金主於緊斂, 所以秋脈緊細而微, 濕土主於縱緩, 所以六月其脈緩大而長也. 如地濕則縱緩滑澤, 乾則緊斂燥澁, 皴揭之理, 明可見焉. 俗云皴揭爲風者, 由風能勝濕而爲燥也"

反秉水化制之也, 故病熱極則反出五濕婦人帶下淋瀝及厥逆身冷, 或爲惡寒戰慄而或反冷痛也"

80) 李聰甫 等, 上揭書, p.7.

河間은 여러 서적에서 燥를 論함에 있어서 火熱이나 寒과 關係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인이 어떠한지 燥를 火熱이나 寒에 부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기운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河間은 麻痺의 症狀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燥病은 水液氣가 衰少한 것이니 血이 皮肉을 營養하지 못하여 氣가 通利하지 못하면 皮膚가 갈라지고 터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麻痺不仁潤乾하는 것은 水가 적고 火가 많은 것으로 『周易·繫辭』에서 말한 “萬物을 燥하게 하는 者는 火보다 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火가 極하고 熱이 甚하여 水가 심하게 마르고 몸에 潤함이 없으면, 皮膚가 트고 手足이 갈라지는데, 겨울에 심하고 여름에 쇠한다고 하였다(82).

이러한 麻症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河間の 시대에는 대부분 烏附를 사용하였는데, 河間은 이 方法은 氣行이 갑자기 막혀서 麻病이 된 경우에 草烏附子를 사용하여 道路를 衝開하고 通利하게 되면 氣行이 通하게 되므로 병이 낫게 되는 것으로, 단지 津液을 亡하여 燥가 되어 발생한 麻症에 熱證이 없는 경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風熱이 濕을 勝하여 燥가 되고 이로 因하여 麻症이 되면 마땅히 退風散熱하고 活血養液하고 潤燥通氣하는 涼藥으로써 調하여 麻症이 스스로 낮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83).

河間은 大便乾澀해진 것은 大腸에서 熱을 받아서 燥澀을 이룬 것이라고 하고, 諸澀枯渴癱瘓中風 같은 것은 다 火熱로 인하여 血液이 耗損되고 玄府가 閉塞되어 浸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肢痛痺戾하는 자는 風熱濕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上記한 것과 같은 病機로 偏枯語音澀하고 手足이 不隨

한다고 설명하였다(84).

燥病으로서 또 중요한 질병이 消渴이다. 河間은 消渴의 病機를 萬物이 땅과 물에 근거하므로 水土는 濕寒한 것인데, 燥熱陽實하게 되면 땅이 萬物의 뿌리를 제대로 세울 수 없으므로 그 위의 생물을 정상적으로 生育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85). 消渴의 원인에 대해서는 본래 飲食失飪나 大病 등으로 인하여 陰氣와 血液이 虛해지며 陽氣가 지나치고 燥熱鬱이 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86), 또 消渴에 小便이 많아지는 것은 燥熱이 太甚하면 三焦腸胃의 腠理가 佛鬱結滯하여 緻密하고 막히니 水液이 滲泄하여 外部를 濕潤치 못하므로 비록 많이 마셔도 外部를 浸潤하지 못하여 渴症이 그치지 않고 小便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하였다(87).

河間은 또한 燥가 火 이외에도 寒涼의 기운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고 하여 燥病이 겨울에 심해지고 여름에 호전하는 것은 寒의 성질이 사물을 收斂하게 하는 것이므로 寒하면 腠理를 閉密하게 함으로써 汗이 없어지게 되어 燥를 더욱 燥하게 하므로 病이 甚해지며, 熱하면 皮膚가 縱緩하여 腠理가 疏通되므로 汗이 나서 燥했던 것을 潤하게 하므로 病이 衰해지게 된다고 하였다(88).

84) 劉河間,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宣明方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811~812.

“大便乾澀乃大腸受熱化成燥澀, 經云諸澀枯渴又如癱瘓中風, 皆因火熱耗損血液, 玄府閉塞不能浸潤, 金受火鬱不能發聲, 肢痛痺戾者, 風熱濕相致而遂以偏枯語音澀手足不隨也”

85) 劉河間,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三消論(儒門事親 中在),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308~309.

“夫土爲萬物之本, 水爲萬物之元, 水土合德以陰居陰同處乎下以立地爲氣, 萬物根于地, 是故水土濕寒, 若燥熱陽實, 則地之氣不立萬物之根索澤而枝葉枯矣”

86) 劉河間, 三消論, 上揭書, p.310.

“消渴者, 本因飲食服飪失宜, 腸胃乾潤, 而氣液不得宣平, 或耗亂精神, 過違其度, 或因大病, 陰氣損而血液衰虛, 陽氣悍而燥熱鬱甚之所成也”

87) 劉河間, 三消論, 上揭書, p.311.

“燥熱太甚, 而三焦腸胃之腠理佛鬱結滯, 致密壅塞, 而水液不能滲泄浸潤于外, 營養百骸. 故腸胃之外燥熱太甚, 雖復多飲于中, 終不能浸潤于外, 故渴不止. 小便多出者, 如其多飲, 不能滲泄于腸胃之外, 故數溲也”

88)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286.

“所謂寒月甚而暑月衰者, 由寒能收斂腠理閉密, 無汗而燥故病甚也, 熱則皮膚縱緩, 腠理疎通而汗潤故病衰也. 或

82) 劉河間, 保命集, 上揭書, p.18.

“澀枯者水液氣衰少血不榮於皮肉氣不通利, 故皮膚皴揭而澀也, 麻痺不仁潤乾者, 水少火多, 繫辭云燥萬物者莫熯乎火, 故火極熱甚水溢乾而不潤於身, 皮膚乃啓裂, 手足有如斧傷而甚三二分者, 冬月甚而夏月衰”

83)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286.

“俗方治麻病多用烏附者, 令氣行之暴甚, 以故轉麻, 因之衝開道路, 以得通利, 藥氣盡則平, 氣行通而麻愈也. 然六氣不必一氣獨爲病, 氣有相兼, 若亡液爲燥, 或麻無熱證, 即當此法. 或風熱勝濕爲燥, 因而病麻, 則宜以退風散熱, 活血養液, 潤燥通氣之涼藥調之, 則麻自愈也”

이상을 살펴볼 때 河間은 燥에 관하여 상당히 정밀하게 논술하고 燥의 성질을 먼 질병의 病因·病機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歸結하면 결국 燥는 濕氣가 없는 상태로써 질병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원인이든지 간에 인체 내에 津液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燥의 형상을 띠는 병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河間이 燥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內經』의 運氣論을 고답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內經』이나 王冰의 注文을 그대로 답습하였다면 이러한 燥에 관한 설명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河間은 燥病이 寒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河間이 당시에 臨床을 할 때에 단순히 火熱에만 치우쳐서 病을 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河間이 당시의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얻은 소견임이 분명하다.

## 6) 運氣學을 실제 臨床에 응용

河間은 運氣로 자연과 인체의 질병을 파악하였고, 그것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여 脈診과 用藥 방면에 사용하였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干支의 변화에 고식적으로 얽매인 부분은 거의 없으므로 그의 주장과 실질적인 응용이 일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 脈診 方面에 사용

脈診에 있어서 河間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세상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혹은 비정상적으로 六氣의 변화가 있으며, 그 변화는 지구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에는 사람도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六氣가 변화하면 마땅히 그 변화가 脈象에도 반영되고, 그 반영함이 당시 六氣의 변화와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病的發生과 微甚을 결정하게 된다.

자연계는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가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추운데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인체내의 原氣도 이에 반응하여 움직이며, 해당하는 시간의 바깥에 따라서 변화 순행한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이외에도 인체는 해와 달의 뜬과 짐, 참과 이지러짐의 영향을 받아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內經』에

以水濕皮膚而反喜皴揭者，水濕自招風寒故也”

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脈象의 변화를 인식하여 ‘春弦夏洪秋毛冬石’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氣口脈法에서 左手와 右手의 寸關尺에 따라서 각각 해당하는 臟腑가 다른데 그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河間은 그것에 대하여 左手는 陽이고, 陽은 君이 남쪽을 面하여 布政하니 陽은 子에서 시작하고, 水의 위치는 左尺의 脈을 주관하여 脈이 尺을 따라서 寸에 들어가는 까닭에 水는 左關에서 風木을 生하고 丑에서 卯初에 이르는 氣와 응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에 木은 君火를 左寸에서 生하는데 陽道가 이미 이루어진 까닭에 君火가 되니 乾이 子에서 시작하여 巳에서 끝나는 것과 유사하여 卯正에서 巳에 이르기까지가 二之氣가 된다고 하였다. 이때에 임금은 위에 있고 신하는 아래에 있는 형국이니 陽은 나아가 올라가고, 陰은 물러나 하강하게 되는데, 右手는 陰이 되어 午火에서 시작하고, 火는 面北하여 氣를 받으니 巳로부터 未正까지가 三之氣라고 하였다. 三焦는 正火이고 右尺의 脈을 主하고 相火는 右關正位에서 生濕土하니 酉까지가 四之氣가 된다고 하였다. 濕土는 右寸에서 生金하여 酉에서 亥에 이르는 기간이 五之氣에 應하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다시 左尺으로 흘러서 순환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sup>89)</sup>. 이와 같이 時辰의 변화에 따라 각각 主하는 脈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므로 그에 따라 진단에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일년 중에는 前半年은 司天之氣가 主하고 後半年에는 在泉之氣가 主하는데, 그 각각 主하는 氣의 종류가 다르므로 그것이 인체에 일으키는 질병도 다르게 되며, 또한 각 기간에 用事하는 氣에 따라서 나타나는 脈의 변화도 다르다. 이러한 道理를 알기 위해서는 歲政의 남북을 먼저 파악하여 君臣의 運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河間은 五運은 土運으로써 君主를 삼는데 南面하여 君主가 되면 이것이 南政이고, 북쪽을 바라보고

89) 葛雍 篇, 上揭書, pp.856~857.

“左手爲陽陽爲君面南布政而陽始於子水以一歲六氣正位分之，則應於亥正至丑終氣衰也。水之位主於左尺之脈，脈從尺入寸，故水生風木於左關，應丑至卯初之氣也，木生君火於左寸陽道已成，故爲君火猶始於子而終於巳也，自卯正至巳二之氣也，君上而臣下陽進而升陰退而降，故右手爲陰始於午火，火面北而受氣自巳至未正三之氣也，三焦爲正火主右尺之脈相火生濕土於右關正位以至酉四之氣也。濕土生金於右寸應酉至亥五之氣也，又主左尺水周而復始也”

임금이 되면 北政이라고 하였다. 南政의 해에 少陰司天을 만나면 天位가 南에 있어서 兩寸이 不應하고 脈이 沈하고, 厥陰司天을 만나면 少陰이 右에 있으니 上角이라고 말하며 右寸이 不應하며, 太陰司天을 만나면 少陰이 左에 있으니 上宮이라고 말하며 左寸이 不應하고, 少陰在泉을 만나면 또한 司地라고 이름하며 地位가 北에 있으니 兩尺이 不應한다고 하였다. 左右가 同法이며 다른 것들도 모두 이를 본받으니 이것은 모두 君火의 소재를 따라서 脈象이 沈하고 不應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sup>90)</sup>.

四時의 변화나 각 해의 司天在泉에 따라서 脈이 변화하면 마땅히 그 해의 運氣와 相하는 脈이 있고 相하지 않는 脈이 있게 된다. 만일 정상 脈象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비정상적인 脈象이 드러난 경우에 그 질병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河間은 그러한 원리에 따라 天의 六氣가 이르면 사람의 脈도 또한 그것에 응하여 이른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만일 厥陰이 이룬다면 脈이 弦軟虛하면서 滑하고 端直하면서 長하는데, 이를 弦脈이라고 하니 風의 性質이면서 木의 형상이다. 이 脈은 實하고 強하면 病이고, 不實하고 微弱해도 病이며, 不端直長해도 病이고, 그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도 病이고, 위치해도 弦하지 않으면 病이다. 少陰이 이룬다면 그 脈은 鉤하다. 脈이 오는 것이 盛하고 가는 것이 衰하여 마치 눌려놓은 띠쇠와 비슷하여 이를 鉤脈이라고 한다. 暑氣의 성질은 火의 형상이다. 오는 것이 盛하지 않고 가는 것이 반대로 盛하면 病이고 오는 것이 盛하고 가는 것도 盛하면 역시 病이다. 눌려놓은 띠쇠와 같지 않아도 病이고 그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아도 病이며, 위치해도 鉤脈이 아니면 또한 病인 것이다<sup>91)</sup>.

90)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122.

“然五運以土運爲君主, 面南而爲君, 故曰南政, 餘四運爲臣主, 面北而侍君, 故曰北政也. 陰陽之脈位者, 亦謂君臣之道也. 然六氣以少陰火爲君主, 餘皆爲臣, 治內而降其命, 臣奉命而治其外, 外者陽也, 故其脈浮, 內者陰也, 故其脈沈. 假令南政之歲, 是面南而君之也. 遇少陰司天, 所謂天位在南, 故兩寸不應, 而脈沈也. 遇厥陰司天, 則少陰在右, 故曰上角, 則右寸不應. 遇太陰司天, 則少陰在左, 故曰上宮, 則左寸不應. 遇少陰在泉, 亦名司地, 地位在北, 故兩尺不應也. 左右同法. 餘皆倣此, 皆隨君火所在, 乃脈沈不應也”

91)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111.

河間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春夏秋冬 四時에도 脈이 그 변화에 응하여 바뀌는 것을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主氣 중에 六氣가 각각 用事하는 기간에도 그 때마다 該當하는 脈의 變化를 설명하였다.

河間은 “春分の 前이 風木의 위치인데 陽氣가 王함으로써 天이 用事하지만 그 氣는 아직 적으므로 少陽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때는 사물이 萌芽하는 시기로서 穡이 始生하는 것이 잠깐이고 大小長短이 같지 않은 것이 그 脈의 象이다. 陽明이 王하여 그 脈이 浮大하고 短한 것은 春分에서 小滿 前에 이르기까지 二의 氣分이니 君火의 위치이다. 그 氣는 크지도 작지도 않으므로 陽明이라고 하니 번영하고 깨끗하다. 비록 旺盛하지만 여전히 高茂하지는 않은 것이 이 脈의 象이다. 太陽이 王하여 그 脈이 洪大하고 長한 자는 소위 小滿에서 大暑의 前에 이르기까지 三의 氣分이니 相火의 位置이다. 그 氣는 심히 盛하므로 太陽이라고 말한다. 太陰이 王하여 그 脈이 緊大하고 長한 자로 소위 大暑에서 秋分の 前에 이르는 四의 氣分이니 濕土의 위치이다. 陰氣가 이미 王하고, 地가 그것을 主한다. 마땅히 陰分이므로 가히 陽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氣는 항상 盛하여 작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太陰이라고 말한다. 少陰이 王하여 그 脈이 緊細하고 微한 자는 秋分에서 小雪의 前에 이르는 五의 氣分을 말하니 燥金의 위치이다. 그 氣는 收斂하고 점점 작아져서 少陰이라고 말한다. 厥陰이 王하여 그 脈은 沈短하면서 多타운 象을 띤다. 小雪에서 大寒의 前에 이르는 終의 氣分을 말하는 것으로 寒水의 위치이다. 그 氣가 쇠하여 장차 다하게 되면 交叉하므로 厥陰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sup>92)</sup>. 이

“凡天之六氣所至, 則人脈亦應之而至也. 氣至而脈應者, 是謂平和之脈, 故曰天和六脈也. 歲厥陰所至, 其脈弦軟虛而滑, 端直以長, 是謂弦, 風之性也, 木之象也. 實而強則病, 不實而微亦病, 不端直長亦病, 不當其位亦病, 位不能弦亦病. 歲少陰所至, 其脈鉤, 來盛去衰, 如偃帶鉤, 是謂鉤, 暑氣之性, 火之象也. 來不盛去反盛則病, 來盛去盛亦病, 不偃帶鉤亦病, 不當其位亦病, 位不能鉤亦病 …… 察陰陽所在而調之, 以平爲期. 正者正治, 反者反治”

92)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119.

“至春分之前, 風木之位也. 陽氣而王, 而天用事, 其氣尙少, 故曰少陽也. 物之始萌而乍生, 大小長短不等, 是其脈之象, …… 陽明王, 其脈浮大而短者, 是春分至小滿前二之氣分, 君火之位也. 其氣非太非少, 故曰陽明, 物之番鮮矣. 雖王而尙未高茂, 是其脈之象也. …… 太陽王,

상의 문장들에서 河間이 인체 내부 생리변화의 根本이 되는 원리를 運氣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正常 脈象을 설명하였는데 그 외에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부적절한 脈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病脈이 된다. 일반적인 病脈은 春에 弦하지 않음과 夏에 數하지 않음과 冬에 沈하지 않음과 秋에 濇하지 않음과 같은 것이거나, 沈이 심하거나 弦이 심하거나 濇이 심하거나 數이 심한 등의 지나친 脈이 나타나는 것 또는, 氣가 아직 去하지 않았는데 脈이 去하거나 氣가 이미 去하였는데 脈이 去하지 않은 것 같이 때에 적당하지 않은 脈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春에 秋脈을 얻고, 秋에 夏脈을 얻고, 夏에 冬脈을 얻고, 冬에 長夏脈을 얻고, 長夏에 春脈을 얻는 四時官鬼가 서로 형벌을 주는 脈 역시 病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든 자는 사망하기 쉽거나 병이 더욱 위중해질 수 있다고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河間은 이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간단히 죽음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春脈은 마땅히 弦해야 하고, 秋脈은 濇해야 하지만 만약 陽明금이 初之氣로 있는 경우라면 客氣가 盛하여 氣가 大涼하고 脈이 短濇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비록 이와 같이 봄에 秋脈을 얻은 경우면 金은 마땅히 克木할 수가 있으니 이것이 鬼賊의 脈이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脈이 天時에 응하여 이른 바가 되면 비록 時位에 반대가 되더라도 도리어 정상이 되어서 平和의 脈이 된다고 하였다.

河間은 四時와 臟腑脈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肝病이 肺脈을 얻었다고 하고, 肺病에 心脈을 얻었다고 하고, 心病에 腎脈을 얻었다고 하고, 腎病에 脾脈을 얻었다고 하고, 脾病에 肝脈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병에 걸렸을 때 반드시 죽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가령 봄에 脾病이 있는데 혹 厥陰所至를 만나면 그 병이 나오려고 하는 것이니 脾는 本位에 肝脈이

其脈洪大而長者, 所謂小滿至大暑之前三之氣分, 相火之位也, 其氣甚盛, 故曰太陽. …… 太陰王, 其脈緊大而長者, 所謂大暑至秋分之前四之氣分, 濕土之位也, 陰氣已王, 而地主之, 當陰之分不可言其陽, 其氣尙盛不可言其少, 故曰太陰. …… 少陰王, 氣脈緊細而微者, 所謂秋分至小雪之前五之氣分, 燥金之位也, 其氣收斂而漸少, 故曰少陰. …… 厥陰王, 其脈沈短而數者, 所謂小雪至大寒之前終之氣分, 寒水之位也, 其氣而衰, 將盡而交也, 故曰厥陰”

보이는 것이 平和한 候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 春氣가 溫和한데 肝에 병이 있어서 肺脈을 얻는 자는 이는 鬼賊의 脈인 것이니 그 병이 위태롭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93)</sup>.

河間은 孟春脈이 沈하면서도 弦하지 않고 孟夏脈이 弦하면서도 數하지 않고, 孟秋脈이 數하면서도 濇하지 않고 孟冬脈이 濇하면서도 沈하지 않은 것은 비록 때에 응하지 않은 것이지만 병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은 四時의 氣가 다 仲月에서 시작하여 季月에 盛해지는 것으로 차이가 1월의 뒤에 있으니 사람의 脈도 이것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94)</sup>.

이러한 문장들은 河間이 脈象에 관해서 고식적으로 시간의 변화나 五行의 剋制關係에 얽매이지 않고 運氣로 자연변화의 형상을 취하고 그것을 추구하여 실제 환자의 診斷에 결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라고 하겠다.

#### (2) 用藥 方面에 사용

河間이 病證과 病機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干支를 채용한 예가 간혹 보이나 실제로 藥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방법으로 用藥하지 않았다. 시간과 관계하여 藥物을 응용한 것은 비교적 큰 시간의 단위인 六氣가 主하는 기간이나, 春夏秋冬 4季的 변화에 따른 藥物의 운용방법을 설명하였을 뿐이다. 이는 河間이 실제 임상을 하는데 있어서 당시에 유행하던 干支를 계산하여 處方用藥하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대단히 실증적이고 합리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보여

93)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124.

“春得秋脈, 秋得夏脈, 夏得冬脈, 冬得長夏脈, 長夏得春脈, 是四時官鬼相刑之脈, 其病當死者, 慎不可便言其死也. 然春脈當弦, 秋脈當濇, 若歲陽明金居初之氣, 客氣盛則其氣大涼, 其脈短而濇. 雖是春得秋脈, 金當克木, 是鬼賊之脈, 又有何咎, 所謂脈應天時而至, 雖反時位, 不反無常, 亦爲平和之脈也. 或曰肝病得肺脈, 肺病得心脈, 心病得腎脈, 腎病得脾脈, 脾病得肝脈, 此是鬼賊之脈, 其病必死者, 亦不可便言其死也. 假令春有脾病, 或遇厥陰所至, 其病欲愈, 脾本位而見肝脈, 是謂平和之候也, 若便言死, 豈非粗工之謬也. 若春氣溫和, 而肝有病, 反見秋脈者, 此是鬼賊之脈也, 其病殆而殞也.”

94)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124.

“孟春脈沈而不弦, 孟夏脈弦而不數, 孟秋脈數而不濇, 孟冬脈濇而不沈者, 雖不應是, 而亦非病也. 蓋四時之氣, 皆始於仲月, 而盛於季月, 差在一月之後, 人脈亦從之”

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河間은 愈風湯의 加減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常服하는 약은 四時의 바뀜을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봄이 다가오는 大寒 후에는 半夏柴胡人蔘을 증량하여 少陽의 氣를迎하여 奪하고, 여름이 다가오는 달에는 石膏黃芩知母를 증량하여 陽明의 氣를迎하여 奪하며, 季夏 6월에는 防己白朮茯苓을 증량하여 脾土의 濕氣를 勝하게 하고, 초가을 大暑 후에는 厚朴藿香肉桂를 늘려 사용하여 太陰의 氣를迎하여 奪하며, 霜降 후 겨울이 되는 시점에는 附子肉桂當歸를 증량하여 少陰의 氣를 勝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加減의 예를 제시하였으나 河間은 역시 치료하는 때의 병의 虛實과 寒熱, 土地의 마땅함, 邪氣의 多少를 살펴 치료해야 한다고 하여 그의 방법에만 고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行態를 스스로 경계하였다<sup>95)</sup>.

仲景의 『傷寒論』을 보면 傷寒과 傷風의 證을 치료함에 있어서 그 症狀을 크게 無汗과 有汗으로 大別하고 麻黃湯과 桂枝湯을 각각의 代表方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河間도 傷寒을 설명하면서 有汗과 無汗의 증상이 대표가 될 경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仲景의 것에 비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用藥을 달리한 차이점이 있다. 河間은 有汗에는 麻黃을 먹을 수 없고 無汗에는 桂枝를 먹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春夏에는 汗孔이 넓어져서 비록 有汗하다고 하여도 桂枝를 쓸 수 없고 黃芪湯으로 和解한다고 하였다. 秋冬에는 汗孔이 닫혀있으므로 비록 無汗하여도 麻黃을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川芎湯으로 和解한다고 하였다. 河間은 이렇게 用藥한 원리가 春夏에 有汗하면서 脈이 微弱하고 惡風, 惡寒하는 것은 太陽證이고 秋冬의 脈이므로 혹 黃芪湯이 마땅할 수도 있으나 無汗에는 또한 川芎湯이 마땅하며, 秋冬에 有汗하고 脈이

盛浮하면서 發熱, 身熱한 사람은 陽明證이고 春夏의 脈이므로 혹 黃芪湯이 마땅할 수도 있으나 無汗에는 川芎湯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96)</sup>. 이러한 河間의 用藥法은 그가 비록 仲景의 방법을 존중하더라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의 處方을 운용하는 道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그의 서적을 살펴보면 동일한 한가지의 代表方에서 春夏秋冬의 변화에 따라 加減하는 藥物을 달리하는 원칙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保命集婦人胎產論』에서는 “四物湯이 그러하다. 春夏에 비록 柴胡를 따르지만 秋冬에는 생략한다. 같은 四物之劑라도 藥性의 寒熱, 病證의 虛實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四物湯은 常服하는 약이지만 四時에는 각각 本方에서 증가하고 덜어내는 것이 있다. 봄에는 川芎을 倍加하고, 여름에는 芍藥을 倍加하고, 가을에는 地黃을 倍加하고, 겨울에는 當歸를 倍加한다. 이는 四時之氣에 順하여 먹는 것이니 證을 대함이 있으되 낫지 않는 것은 그 도움을 잃었다고 한다”<sup>97)</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장에서 河間이 藥物을 사용함에 있어서 계절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 변화에 따라서 藥物을 운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河間 運氣學의 運用

#### 1) 현 시대의 運氣學 상황

(1) 현 시대에서 運氣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현대 중국쪽의 보고에 의하면 태풍의 회수, 북태평양고기압의 남방한계위치, 북경의 총강수량의 평균이상빈도 등이 대략 60년의 주기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대용량 컴퓨터(computer)를 이용하여 1871에서 1976년에 이르는 106년 동안 세계의 기압

95) 劉河間, 保命集, 上揭書, pp.32~33.

“常服之藥不可失四時之轉 如望春大寒之後加半夏二兩通四兩, 柴胡二兩通四兩, 人蔘二兩通四兩, 謂迎而奪少陽之氣也. 望夏之月半加石膏二兩通六兩, 黃芩二兩通五兩, 知母二兩通四兩, 謂迎而奪陽明之氣也. 季夏之月加防己二兩通四兩, 白朮二兩茯苓二兩通五兩 謂勝脾土之濕也. 初秋大暑之後加厚朴二兩通四兩, 藿香二兩桂一兩通二兩, 謂迎而奪太陰之氣也. 霜降後望動加附子一兩桂一兩通二兩 當歸二兩通四兩謂勝少陰之氣也. 得春減冬四時類此雖立法於四時之加減更宜臨病之際, 審病之虛實寒熱, 土地之宜邪氣之多少”

96) 劉河間, 保命集, 上揭書, p.44.

“論曰, 有汗不得服麻黃, 無汗不得服桂枝, 然春夏汗孔疎, 雖有汗不當用桂枝宜用黃芪湯和解, 秋冬汗孔閉雖無汗不當用麻黃, 宜用川芎湯和解, 春夏有汗脈乃微而弱惡風惡寒者乃太陽證, 秋冬之脈也, 或宜黃芪湯, 無汗亦宜川芎湯, 秋冬有汗脈盛而浮, 發熱身熱者乃陽明證, 春夏之脈也, 亦宜黃芪湯, 無汗亦宜川芎湯.”

97) 劉河間, 保命集, 上揭書, p.85.

“春夏雖從柴胡, 秋冬約同四物藥性寒熱病證虛實不可不察也, 四物湯常病服餌, 四時各有增損今俱增損于後, 春倍川芎, 夏倍芍藥, 秋倍地黃, 冬倍當歸, 此常服順四時之氣, 而有對證不愈者謂失其輔也”

과 강수량 등 많은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는 60년 전후로 주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 黃嘉佑 등은 長江 유역의 11년 가뭄 피해 주기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運氣의 12地支 주기와 비슷하다고 하였다<sup>98)</sup>. 趙宗慈는 동경 100도로부터 동쪽으로 100개의 지점의 침수 피해를 분석하고, 그 지방의 형태나 다른 기후요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36년 주기, 22년 주기, 11년 주기, 5~6년 주기, 2~3년 주기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sup>99)</sup>. 이러한 보고들을 종합하면 기후변화에는 일정한 주기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의 발생과 運氣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수종 발표되고 있는데, 何金新은 1946~1960년 麻疹의 발병이 運氣의 太過不及天刑·順化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盛國榮은 1958~1961년 肝病 환자의 발병도 運氣와 부합하는 면이 많다고 하였다. 廣西中醫學院에서는 1951~1980년 법정전염병을 보고한 疫病 疔瘡 자료를 종합한 결과 질병의 이환률과 각 년의 司天在泉의 氣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sup>100)</sup>. 田文劉는 1978~1989년 발생한 腦梗塞과 각 해마다의 運氣 사이에는 유의할 만한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sup>101)</sup>.

이외에도 사람의 출생과 運氣의 관계를 설명한 보고도 있는데 汪德云은 신생아 출생과 運氣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물체는 氣의 形成擴散終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어서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유전인자에는 조상의 어떤 특성을 계승하도록 되어있는 것이고, 하나의 특정 속에는 시간적인 유전정보가 들어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공간에서 주어진 환경이 사람이 태어난 運氣와 반대되는 것이면 그 형질이 잠복하고, 일치하면 유전적인 형질이 드러나는 '先祖回復'의 생명현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그는 출생시기(주로 胚胎成熟期)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38건의 천식환자를 조사한 결과 戊年の 하반

년에 출생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火邪가 太過한 시기에 肺金이 邪氣를 입은 것으로 해석하였다<sup>102)</sup>. 連維眞은 그의 논문에서 1985년에서 1986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를 고찰해본 결과 陽的인 시간대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男兒의 비율이 높은 것은 "同者盛之, 異者衰之"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라고 보고하고 있다<sup>103)</sup>.

이러한 논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논문들은 사실들의 기록이므로 運氣와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경향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경향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위의 논문들에서 제시하는 것은 대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약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干支의 의미를 파악하면 설명될 수 있다. 干支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干支는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리듬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시하는 체계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干支가 진리 그 자체가 아니고 시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는 우주에서 실존하는 시간이라는 존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또한 陰陽五行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현상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이므로 그것이 사물을 표현하게 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陰陽五行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運氣에서 다시 干支라는 상징을 취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배합함으로써 도출된 결론이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張其成은 『內經』이나 『類經圖翼』에서 기술하는 干支를 계절에 연관하는 것이나 八卦에 배합하는 것은 반드시 실재하는 일이라고도 또는 주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104)</sup>.

더욱이 현대 氣象과 運氣와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運氣學說이 만들어진 黃河 지방에서는 기상에 대한 運氣의 부합비율이 60~70%에 달하지만 黃河 유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나아가면 그 비율이 감소

98) 楊力, 上揭書, pp.268~269.

99) 田維霖, 三十五年來運氣學說研究概況, 浙江中醫雜誌, 1986 8月號, pp.357~358.

100) 楊力, 上揭書, pp.194~195.

101) 田文劉, 腦梗塞發生運氣節律與氣象天文相關性初探, 山東中醫學院學報, 1991, Vol 15, No 6, pp.33~46.

102) 楊力, 上揭書, pp.271~272.

103) 連維眞, 從嬰兒出生時間和性別探討(內經)天人相應規律, 遼寧中醫雜誌, 1990 3期, pp.3~4.

104) 張其成, 援易入醫以易訓醫, 醫古文知識, 1994, 總43期, No 3, pp.14~16.

하는 것을 보면 運氣를 현실에 고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sup>105)</sup>.

李文海 彭增福은 그의 논문에서 運氣와 실제 기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구의 기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태양복사-대기순환-지구표면의 요소가 삼림의 급격한 감소, 대기 조성 성분 중의 이산화탄소의 증가, 해양 오염의 악화, 사막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서 그 전과 비교하여 아주 많이 달라졌으므로 수천년 전의 運氣法則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발표되는 여러 논문 중에서 運氣와 기후가 상당히 부합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현상을 運氣의 이론을 통해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미래에 발생 가능한 현상을 예측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sup>106)</sup>.

孟慶云은 運氣學說에서 제시하는 기상과 관련한 내용은 주관적이면서 述者의 경험판단을 중시한 것이고, 수량화하거나 객관적으로 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해가 '熱'하다고 하면 단지 그 해가 온도가 높을 것이라는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그 해의 평균온도가 다른 해의 평균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량화하여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運氣를 기상과 유행병의 예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연역추리한 것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으로, 기후와 발병 모두 많은 종류의 원인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干支라는 오직 하나의 정보만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sup>107)</sup>.

運氣에 능통한 醫家인 張景岳도 자신이 運氣를 추산해 본 결과 運氣가 자연현상과 부합하는 것이 7할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sup>108)</sup>. 여기서 張이 말한 것은 나온 결과를 運氣를 이용해서 해석한 것이 70%라는 말이므로 만약 運氣를 이용하여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일이라면 그 정확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

하다. 따라서 한계가 있는 運氣의 법칙을 이용하여 運氣가 이리하므로 100%에 근접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고식적으로 실제에 응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干支와 陰陽五行이 인간이 만든 상징 중에서 자연현상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고, 그 외에 더 좋은 대안이 없으며, 실제로도 현실과 부합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배격하는 것도 옳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五運六氣의 법칙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응용하기는 하되 자연현상을 잘 관찰해야하며 運氣의 각종 법칙을 민첩하게 응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이야말로 劉河間이 運氣를 이용한 기본 정신인 것이다.

#### (2) 運氣의 고식적인 이용에 대한 비판

上述한 것처럼 劉河間의 시대에 干支를 고식적으로 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運氣 중의 干支 배합을 실제 임상에 그대로 응용한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五運六氣學解說』에서는 예를 들어 辰戌之氣는 太陽司天-太陰在泉인데, 太陽寒水의 氣와 太陰濕土의 氣가 서로 합해진 것이므로 肌萎足痿不收瀉瀉血溢 등의 증상이 잘 발생한다고 하고, 이 증들은 太陰病證에 속하여 太陰病의 主處方인 理中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辰戌之氣가 用事하는 해라면 初之氣는 少陽相火이며 厥陰風木에 加臨하는데, 風火는 同氣이므로 나타나는 病證도 溫하여 身熱頭痛嘔吐肌腠瘡瘍 등의 風熱證이 나타나는데, 이 때는 防風通聖散으로 解表通裏消風清熱 시킨다고 설명하였다<sup>109)</sup>. 이 내용은 각 해에 해당하는 司天-在泉의 氣를 推算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運氣學講義錄』에서도 60甲子 각 해마다의 氣와 해당하는 질병을 설명하고 이에 알맞는 處方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六年年 敦阜之氣의 해에는 土가 太過하여 雨濕이 大行하고, 腎水가 邪氣를 받아서 腹痛青脈意不樂肌肉痿足痿脚下垂中滿食減四肢不舉의 병이 유행하니 附子山茱萸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 또 六丙年 流行之氣의 해에는 水가 太過하여 寒氣가 大行하니

105) 楊力, 上揭書, pp.255~256.

106) 李文海 彭增福, 運氣學說研究之回顧, 北京中醫學院學報, 1992 15卷 3期, pp.8~10.

107) 孟慶云, 上揭書, p.6.

108) 盛國榮 白介辰, 運氣學說在臨床的運用, 出版地 不明, 出版年 不明, p.1 - 再引用.

“讀運氣者, 當知天道有是理, 不當日必如是也. …… 自余有知以來, 常以五六之義逐氣推測, 則彼此盈虛, 十應七八, 卽有少不相符者, 正屬井蛙之見, 而見有至未至耳, 豈天道不足凭耶”

109) 權依經, 五運六氣學 해설, 서울, 法仁文化社, 1996, pp.228~230.

心火가 邪를 받아서 身熱·心躁·陰脈·上下中寒·譫妄·心痛·喘咳·寢寒의 병이 유행하니 黃連茯苓湯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다<sup>110)</sup>.

『五運六氣와 四象醫學』에서는 “甲申年 丙癸生人의 경우, 丙癸生人이 甲申紀를 만나고 甲申生人이 丙癸의 날에 병에 걸리는 자는 丙癸는 水가 太過하여 火不及하며 …… 火가 있고 甲申은 土가 盛하고 水가 不及하니 心脾에 미친다. 자녀가 되는 兩臟에 濕熱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黃連茯苓湯을 쓴다. 甲申年 甲申生人, 甲申生人이 甲申紀를 만나서 병든 자는 附子山茱萸湯이나 五味子湯은 오래 먹을 수가 없고, 六味地黃元 또는 八味丸을 選用한다”<sup>111)</sup>라고 하였다. 이 서적에서는 病者의 出生年月에 따라서 각각 盛하고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處方을 제시하였다.

『五運六氣學』에서는 “가령 木火하면 木運火氣型 체질이란 뜻으로 五運의 木運, 六氣의 火氣에 入胎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같은 木火라도 木 마이너스 火, 즉 六氣의 火를 마이너스 火(君火)로써 氣를 삼은 체질이 있고, 플러스 火(相火), 즉 木 플러스 火를 체질로 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木火臟腑라도 氣가 마이너스 火(君火)일 경우는 運氣의으로 天刑이 되고, 플러스 火(相火)일 경우는 天符가 된다. …… 木 플러스 火는 十全大補湯을 사용하고 …… 木 마이너스 火는 大調中湯을 사용한다”<sup>112)</sup>라고 하였다. 이 서적에서는 入胎日을 기준으로 辨證·用藥하는 방식으로 처방을 구성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서적들은 모두 현재 시점에서 100년 안쪽에 著作된 책들로 干支를 이용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서적은 모두 의학에 있어서 五運六氣를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河間이 생존한 당시에 運氣를 고식적으로 운영하려 했던 풍조와 脈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河間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치료방법이 유행하였고, 河間이 이에 관하여 고민하고 비판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要旨論』에서 그가 말하길, “병이 시작한 날로부터 干으로 運을 취하고 病人의 支干으로써 日運의 크게 王한 辰을 加하여, 陽命한 사람은 順의 방향으로 數하고 陰命한 사람은 逆의 방향으로 數하여 得病한 날에 이르러 어떤 干支인지를 보고 어떤 臟腑가 병을 받았으며 여하하게 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틀린 것이다. 이는 세상의 醫工이 이를 많이 전한 것으로 運氣로써 病을 推斷하고 治療하는 방법을 삼고자 하였으나 사용함에는 실제에 부합하지 아니함이 많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天下에 同屬하는 사람이 비록 같은 날에 병을 얻었다고 할 지라도 어찌 증후가 같으며 한 가지로 병이 전변될 수가 있겠느냐! 日中 運氣와 人命이 相合加臨함에 미쳐서는 그 相生相剋함을 취하여 吉凶을 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천하가 한 가지로 사람에게 질병 있으라고 명하였다면 어찌 한 날에 길흉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혹 日中의 支干納音과 病人의 命을 干支 相合함으로써 吉凶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平人의 災福의 法을 유추하는 것이지 병의 道를 점치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이러한 類는 다 聖經의 旨趣가 아니며, 人心을 狂惑케 하는 것이니 그것의 영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하니 聖經의 妙旨는 크게는 天地를 싸며, 작게는 毫毛까지 들어가고 습하고 造하여 모두 宗한 바가 있으니 어찌하여 이렇게 근본이 다른 論에 머무를 수가 있겠는가? 병의 吉凶을 窮究하고 싶으면 반드시 歲의 天地盈虛와 運의 太少를 밝히고 勝復의 用을 謹察하고 主客同異盛衰에 적용해야 한다. 다음에 병의 標本을 미루어 어떤 氣로 하여 그러한 지, 病邪가 어디에 저장되는 지, 그리고 그것의 虛와 實을 미루어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年歲에 運氣를 加臨하여 그 同異한 逆從을 취함으로써 가히 吉凶을 정할 수 있다”<sup>113)</sup>라고 하였다. 이는 단순

113) 劉河間, 要旨論, 上揭書, pp.165~166.

“然以始病之日, 以干取運, 以病人支干加在日運帝王之辰, 陽命之人, 順而數之, 陰命之人, 逆而數之, 至於得病之日, 見何支干, 便謂是何藏府受病, 如何傳. 若以此爲法者, 誤也. 此法世工多傳, 以爲運氣推病法治, 及其爲用, 而多不應焉. 何以明之, 此天下同屬之人, 同日得病, 豈能證候相同, 而一般傳變者邪, 及夫日中運氣與人命相合加臨, 取其相生相克, 而定吉凶者, 誤也. 何以明之, 此天下同命之人有病, 豈能同日吉凶者也, 或將日中支干納音, 與病人命及支干相合, 而定吉凶者, 此是推平人災福之法, 非謂占病之道也, 凡此之類, 皆非

110) 金海秀, 運氣學講義錄, 서울, 朝鮮基督教彰文社, 1928, p.71.  
111) 張永錫, 五運六氣와 四象醫學, 扶餘, 大成印刷社, 1980, p.49.  
112) 白南詰, 五運六氣學(理論과 實際), 서울, 翰林醫學社, 1979, p.80.

히 干支로만 어떠한 法을 취하여 그것으로 吉凶을 정하고 方藥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楊力은 동일한 運氣가 여러 사람에게 작용하여도 나타나는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運의 太過가 반드시 發病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도리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관건은 臟器 자체의 虛實에 있는 것이므로 運氣가 병으로 되는 것은 반드시 인체의 작용을 통한다고 하여 河間과 비슷하게 논술하였다(114).

河間이 運氣를 운용한 道는 干支를 고식적으로 診斷이나 治法에 이용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河間은 天地自然에 작용하는 運氣를 중요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요소를 더욱 중시하였고, 藥物이나 處方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干支에 얽매이기보다는 六氣의 변화되는 양상이나 계절적인 變化 등의 실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시하였으니 더욱 실질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內經』에는 '時不可違'의 원칙이 존재한다. 그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마땅한 인체내의 생리적 상태가 있고, 運氣의 변화에 의한 병리적인 상태에도 일종의 규칙이 있으므로 치료에 임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명심해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원칙일 따름이고 실제의 상황은 이를 이용하는데 차이가 있다. 羅天益은 『衛生寶鑑 舍時從證』에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비록 질병이 발생한 시간이 여름이었고 환자의 질병이 十九病機 중의 火에 해당하는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大熱한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하였고, 그러한 치료원칙이 '舍時從證'하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 時보다 환자의 증상을 중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115). 즉 時舍에는 정상적인 것

과 반대되는 것이 있고 병에는 假象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마땅히 舍時從證하여 증상에 맞게 治法을 세워야하며 반드시 時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張向群은 치료함에 '時不可違'의 원칙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時에 집착하여 病機를 잘못 세우는 오류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116). 또한 謝文光도 醫家들이 運氣의 法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보면 至難한 『內經』의 運氣理論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그 문장에만 집착하여 六氣 淫勝의 방법을 原文 그대로 기계적으로 응용할 뿐인 것으로 歲時로 병을 정하고 方藥을 결정하는 것은 中醫學의 辨證精神에도 어긋나고 동시에 부정확하다고 하였다(117). 이상의 관점은 運氣를 고식적으로 적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니 河間の 의견과 부합하는 면이 많다고 할 것이다.

현대의 상황은 앞서서 예시하였던 것처럼 河間이 생존할 당시처럼 고식적인 運氣 운용에 일부 빠져들고 있다. 河間은 『原病式自序』에서 당시에 전해지는 運氣의 책이 많으나 대개 大綱만을 들고 있을 따름이고, 그것을 배우는 길이 모두 歌頌鈐圖일 뿐이어서 마침내 體用을 구비하지 못하고 相互間에 得失이 있어서 사람들의 뜻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運氣書를 지은 사람도 運氣書를 지을 만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經의 百中에 하나 둘도 터득하지 못하고 망령되어 運氣의 책을 지어 세상에 전하여 다른 사람을 현혹하고 후학들로 하여금 옛 성인들의 聖經과 妙典에서 날로 멀어지고 날로 疏遠해지게 하여 이를 익히는 자가 드물게 되었다고 탄식하였다. 또한 당시의 세속에서는 運氣에 관한 잘못된 두 가지의 진술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설명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運氣는 증험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여 사람을 현혹시키는 妄說이 된 다 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지 運氣는 大道玄機가 되어 만일 태어나면서부터 알지 못하면 배울 수 없다고 하여 배우는 자도 적고 아는 자도 드물게 되었다고 한 것이다(118).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河間이 생존하

聖經之旨，足以狂惑人心，徵之無驗矣。然聖經妙旨，大包天地，細入毫毛，合造化咸有所宗，何止於此端異論乎。欲窮病之吉凶，必明歲之天地盈虛運之太少，謹察勝復之用，適主客同異盛衰。次推病之標本，何其使然，以厲何藏，及虛與實。將歲中運氣加臨，取其同異逆從，而可定其吉凶者也”

114) 楊力, 上揭書, pp.76~77.

115) 羅天益, 衛生寶鑑,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p.188~189.

“諸痛癢瘡皆屬心火。是言其定理也。此證內外相反，須當捨時從證也。非大方辛熱之劑急治之則不能愈也。……守常者衆人之見，知變者知者之事，知常而不知變，細事

因而取敗者亦多矣。況醫乎哉，守常知變，豈可同日而語乎哉”

116) 張向群, 淺論“時不可違”和“舍時從證”, 北京中醫學院學報, 1993 16卷 1期, pp.15~16.

117) 謝文光, 六氣淫勝治則及制方規律初探, 江西中醫藥, 1992, 23卷 第 2期, pp.43~45.

118)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p.707~708.

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河間이 당시의 運氣에서 火熱을 취한 것이 옳으므로 우리도 河間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河間이 仲景의 治方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당시와 五運六氣世態居民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河間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800여년이나 되었으며, 더욱이 河間의 시대와 비교할 때 世態居民運氣 역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河間이 사용하였던 運氣說이나 病機說을 그대로 취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거 河間이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運氣의 참 뜻을 얻어서 후세에 남을 학설을 주장하였던 것처럼 그의 학술태도를 본받고, 그의 運氣論을 연구하고, 『內經』을 탐구하여 한의학에서 중요한 이론인 五運六氣의 진수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적합한 이론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현재의 環境과 火熱

불을 사용한 이래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지구에 여러 종류의 해악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혁명이 있기 이전과 비교하면 불과 몇 백년 사이에 사람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를 아주 많이 황폐화시켰다. 세계 환경의 변화를 연감으로 보여주는 『지구환경보고서 1998』에 의하면 1998년 당시 전 세계의 삼림면적의 급격한 감소와 해양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해양생물의 감소, 이외에 각종 생물 멸종수의 증가는 실로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sup>119)</sup>.

특히 19세기 산업혁명으로부터 진행된 대기 오염은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1952년 런던과 1955년 일본에서는 스모그가 원인이 된 다수의 호흡기 질환 사망자를 발생시킨바 있다<sup>120)</sup>. 현대에 들어와서는 인

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서와 같이 사람들의 부주의와 기상이변이 결합하여 발생시킨 대규모의 산불이나 대도시에서 자동차 등 내연기관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대기 오염 요소가 기존의 대기 오염과 합쳐져서 더욱 그 폐해가 심각해져가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 중의 하나인 프레온가스는 성층권에 도달하여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며, 이 때 염소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염소원자가 성층권의 오존층을 연쇄적으로 파괴한다. 이렇게 되면 자외선에 생물이 과다 노출되어 여러 가지의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외선이 인체 내에 활성산소(free oxygen radical)를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활성산소는 염색체를 공격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고, 관절을 공격하면 2차적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전달물질의 활성도와 가용성을 떨어뜨려서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sup>121)</sup>

上記한 내용에서와 같이 현대에는 原氣의 기초물질인 淸氣가 과거와 비교하여 오염되었거나 줄어들어 인체 내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적절한 養生으로 陰을 기르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담배를 피워 肺의 津液을 燥하게 하여 陰陽의 不調和를 심화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폐암이나 피부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발생한 다른 하나의 큰 문제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화석연료는 연소되는 과정에서 탄산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탄산가스는 최근 200년 사이에 270ppm에서 340ppm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서 26%의 증가라는 숫자는 우려할 만한 것이다<sup>122)</sup>. 이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는 100년 전보다 약 0.6도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북극, 남극의 빙산이 녹아서 해수면이 점차 상승함으로써 남태평양의 몰디브와 같은 섬들이 조금씩 물밑으로 잠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한의학적으로

“觀夫世傳運氣之書多矣，蓋舉大綱，乃學之門戶，皆歌頌鈞圖而已，終未備其體用，及互有得失，而惑人志者也。況非其人，百未得於經之一二，而妄撰運氣之書傳於世者，是以矜己惑人而莫能彰驗，致使學人不知其美，俾聖經妙典，日遠日疎而習之者鮮矣。悲夫世俗或以謂運氣無徵，而爲惑人之妄說者，或但言運氣爲大道玄機，若非生而知之，則莫能學之者，由是學者寡而知者鮮”

119) 래스터 브라운, 지구환경보고서 1998, 서울, 도서출판 따님, 1999, p.36, pp.16~17p.49p.115p.86p.92p.97p.101p.82.

120) 姜福秀 等, 豫防醫學과 公衆保健, 서울, 癸丑文化社, 1991, pp.130~132.

121) 안병희, 각종 질환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활성 산소, 임상약학 No.5, Vol.14, 1994, pp.120~130.

122) 天竺啓祐 原著, 지구를 파괴하는 범죄자들, 서울, 푸른미디어, 1999, p.22.

는 생각하면 외계에 寒의 기운이 점점 줄어들고 더욱 火熱의 형상을 띠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는 기상이변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상이변이 심각하다. 그 예로는 요즘 특히 기상이변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엘니뇨가 빈발하는 현상이 있다. 엘니뇨란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동태평양 적도지역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까지 밝혀진 바로는 엘니뇨 발생시 일반적으로 인도 몬순이 활발하지 못하고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북부 등 서태평양 적도 연안국가에서는 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화남 및 일본 남부 등 아열대 지역은 잦은 홍수의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 중국 북동부의 반건조 지대에서는 小雨가 되기 쉽고, 동아시아에서는 冷夏가 되기 쉬우며, 겨울철에는 고온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sup>123)</sup>.

엘니뇨와 전염병의 발생빈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최근 몇 년간 기후의 이상 변화가 반복되면서 각종 急性 열성병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말라리아의 경우는 1993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여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 1건, 1994년에 20건, 1995년에 207건, 1996년에 356건이었으나 1997년에는 1724건으로 그 증가세가 비교적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1994년 엘니뇨 때 봄철의 가뭄, 여름의 몬순 악화, 7월의 고온, 건조, 열대야의 연속 등 기록을 세웠는데<sup>124)</sup>, 이 해의 홍역 발생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100배 이상, 유행성이하선염이 4배 가량 증가하였다<sup>125)</sup>.

일찍이 한의학에서는 이상 기후가 발생하면 반드시 질병 특히 急性熱病인 溫病이 쉽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溫病에는 風溫·春溫·暑溫·伏暑·秋燥·溫疫·瘟疫·濕熱 등이 있는데, 이들 질병은 서양 의학의 뇌염·뇌막염·뇌척수막염·편도선염·폐렴·기관지염·유행성감기·백일해·장티푸스·발진티푸스·파라티푸스·성홍열·콜레라·유행성간염·홍

역·유행성 출혈열·AIDS·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등과 유사한 것이다<sup>12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기상이변은 기온의 상승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 火熱의 형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상이변과 연관되어 잘 발생하는 질병들을 살펴보아도 열성 전염병이 많으므로 이것들이 六氣 중에서 火熱한 기운이 작용하여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기상 변화는 최근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매장된 화석연료나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이 급격하게 소비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물리학의 기본법칙 중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가 변화하여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띠더라도 에너지의 형태가 변화하였을 뿐이지 에너지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화한 것이고, 화석연료가 연소되어도 그 에너지의 총량은 결국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석연료와 같은 형태의 에너지는 비교적 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내연이나 외연기관에 의해서 연소되면 많은 부분이 프리에너지(free energy)의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다. 만일 이 변화가 소량으로 일어나면 다시 이것이 안정화되는 것과 프리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균형을 이룰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사용은 프리에너지의 총량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에너지의 기준에서 보면 활성화되어서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불안정한 상태의 에너지는 風·火·熱 등의 陽의인 六氣와 연관지을 수 있으므로 과거에 이러한 외력이 전혀 가해지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더욱 火熱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도 漢代의 기후를 기준으로 성립한 干支紀年과 客主加臨에 의한 運氣說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河間이 자연을 관찰하여 火熱의 형상을 세움으로써 새로운 運氣說을 주장한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현대의 변화된 에너지의 상태나 자연환경에 맞는 運氣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123) 박정규, 엘니뇨 발달과 세계 기후변화, 엘니뇨 workshop 발표집, 기상청, 1997, p.7.  
 124) 윤성호, 엘니뇨현상과 농업, 엘니뇨 workshop 발표집, 기상청, 1997, p.66.  
 125) 최삼섭, 기상이변이 유발하는 질병과 한방치료, 기상이변(El Nino)과 한방건강 seminar 논문집, 1998, pp.89~98.

126) 최삼섭, 上揭書, pp.89~98.

생각한다.

### 3) 현재의 成人病과 火熱

현대는 성인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성인병의 대표가 되는 질환으로는 중풍·당뇨·고혈압 등을 들 수 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3대 사망 원인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악성종양에 이어 전체 사망 원인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주요 사인의 변천 연구' 논문에서는 1970년대 말 이후부터 1990년대에 걸친 우리 국민들의 사망 원인으로 뇌졸중심장병을 포함한 순환기계 질환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암·사고사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는 복잡해진 사회생활에서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반면에 운동량은 적어진 30~40 대의 젊은 층에서 뇌졸중의 발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27)</sup>.

뇌졸중은 『內經』시대에는 仆擊·暴病·暴死·痲病 등으로 기록되었다. 그 후로 張仲景이 中風이란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그것은 六淫으로서의 風에 적중하였다는 뜻으로 傷風의 개념을 띤 것이었다. 그 보다 조금 후대의 巢元方은 中風의 증후를 中風·風懿·風痲·風喎·風偏枯로 분류하였고, 孫思邈은 偏枯·風痲·風懿·風痺의 4대 증상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법은 현대에까지 쓰이고 있다. 劉河間은 기존의 中風 原因說과는 다르게 中風癱瘓은 외부에서 온 風에 적중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中風은 養生을 잘못해서 心火가 暴甚하고 腎水가 虛衰하여 心火를 制하지 못한 결과로 陰虛陽實하고 熱氣가 拂鬱하여 心神이 昏冒하고 筋骨이 不用하며 卒倒하여 아는 바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sup>128)</sup> 中風의 內因說을 주장하였다. 후대의 李東垣은 主氣說을 주장하여 '形盛氣衰'함으로써 中風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河間이 "血이 實하고 氣가 虛하면 痺하고, 氣가 實하고 血이 虛하면 마르게 된다. 肥滿한 사람이 中風에 걸리는 것은 津液亡과 血損傷 때문이고, 마른 사람

이 中風에 걸리는 것은 陽熱甚으로 鬱結不通하기 때문이다"<sup>129)</sup>라고 한 것과 내용이 통한다고 할 수 있다. 朱丹溪는 中風의 病機로 '濕生痰, 痰生熱, 熱生風'의說을 제시하고 滋陰을 주장함으로써 河間の 中風에 滋陰해야 한다는 이론을 추종하였다.

이상과 같은 諸家の說에서 유추할 때 中風은 내부에 眞陰이 부족하고, 섭식불량이나 心火로 인하여 火氣가 勝하게 되므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stress로 인한 30대·40대의 中風이 증가하고 있으니 中風이 火로 인한다는 설은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한의학에서 당뇨는 消渴이라고 하는 것으로 체내에 陰氣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陰氣는 陽氣를 축적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인데, 당뇨병에 걸리면 陽氣의 일종인 당을 체내에 축적하지 못하고 바로 소변으로 내보내므로 인슐린을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당을 체내에 저장시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癰病, 즉 陽만 있는 병으로 보아 마음의 火를 없애고 음식을 담백하게 하며 酒色을 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는 당뇨를 초래한 원인이 心火와 기름진 음식, 酒色이기 때문이다<sup>130)</sup>.

고혈압과 비만도 당뇨와 같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다.朴은 이러한 성인병을 거품경제라고 표현하였는데 거품경제는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출이 증가되어 오는 호황이 아니라 국민의 소비심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과열되어 오는 일시적인 호경기를 말한다. 이 비정상적인 호경기 뒤에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 국민경제의 파탄 등이 오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I.M.F. 체제 하에서 이미 경험했던 일이다. 즉 거품경제와 같이 체내에 氣를 많이 축적하지 아니한 사람이 마음이 妄動하여 酒色을 탐하거나 고기나 당류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곧 혈색이 좋아지고 살도 많이 올라 겉보기로는 매우 건강하게 보일 것이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가고 있어서 어느 순간 몸이 잠자기 무너져듯

127) 김영석, 임상중풍학, 서울, 서원당, 1997, pp.303~304.

128)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733.

"將息失宜而心火暴甚, 腎水虛衰不能制之, 則陰虛陽實而熱氣拂鬱, 心神昏冒筋骨不用, 而卒倒無所知也."

129)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p.733~737.

"血實氣虛則肥, 氣實血虛則瘦. …… 所謂腠理緻密而多鬱滯, 氣血難以通利, 若陽熱又甚而鬱結, 故卒中也. 故肥人反勞者, 由暴然亡液損血過極故也, 瘦人反中風者, 由暴然陽熱太甚, 而鬱結不通故也"

130) 朴贊國, 한의학특강, 서울, 한뜻출판사, 1995, pp.132~133.

이 성인병에 걸리는 것이다. 고혈압과 비만은 모두 영양물질 즉 陽氣는 과다한 상태이지만 체내에 陰氣는 부족한 상태이다. 陰氣는 무엇인가? 陽氣를 정리하여 갈무리함으로써 필요한 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氣로 만들어 보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인체는 끊임없이 氣를 방출하였다가 거두어들이는 일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氣에서 아주 정미한 물질을 모아서 精氣를 만들었다가 이것을 氣의 형태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氣의 방출과 흡수는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고 약 60~80년이 지나면 점차 쇠퇴하게 된다. 그런데 상기한 성인병들에서는 거품경제 식으로 30~40년 만에 모든 元氣를 소모해 버린다. 즉 많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精氣를 소모하고, 그 결과 생성된 水穀之精도 역시 바로 소모해 버리려는 경향이 일어나서 당뇨에서는 당의 형태로 소변으로 배출되고, 고혈압에서는 血管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형태로 변환되고, 비만에서는 체표면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이다(131).

이 외에도 현대에 와서 증가하는 질환은 매우 많다. 우리 나라에서는 단백질의 섭취가 많아지면서 단백질의 대사장애로 인한 통풍의 발병과 과도한 음주-지방식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지방간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그 病源을 살펴보면 모두 역시 陽盛陰虛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병들은 각각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陰陽의 調和가 파괴되어 있으며, 특히 陰氣가 虛하고 陽火는 妄動되어 있는 상태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劉河間の 火熱論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는 疾病 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사람들의 생활 면에서 살펴보면 어떨까? 현대의 냉난방 시설은 거의 외부의 기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실내온도를 유지시킨다. 물론 그것이 당장 활동하기에는 편리하다. 그러나 사람도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자연의 일부이므로 식물과 비교하면 식물은 계절에 따라 氣를 펴고 오므리면서 그 자신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생활하므로 항상 氣가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

서는 氣를 평상시에 갈무리하고 있는 血이 항상 열려져만 있는 상태이므로 血中에 氣가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된다. 『內經』에도 時序에 따른 養生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요점은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라는 것이다. 즉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자고, 봄-여름에는 활발히 활동하고, 가을-겨울에는 활동을 적게 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은 춘하추동의 구별이 없이 활동하고 특히 전구의 발명 이후에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져서 精氣로 하여금 밤에도 쉴 틈을 주지 않아서 피로가 항상 몸에 누적된 상태로 지내게 된다(132).

의복 면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현시대는 상업화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노출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에 꼭 끼는 옷을 입어서 氣血의 순환을 구속한다. 또 사람들이 계절에 알맞은 옷을 입지 않고 겨울철에도 외계에 많은 부분을 드러내어 傷寒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람들의 氣血循環을 정체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통증이나 化熱하는 질환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는 예전보다 더욱 많고, 정도가 심한 음란물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는 인터넷 정보의 90% 이상이 음란물이라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현대는 性의 상품화가 심각하여 쉽게 性이 거래되는 시기이다. 또 사람들의 노출이 많아지고, 윤리도덕관이 희박해지면서 이에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相火가 妄動하는 쪽으로 가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이다. 相火가 妄動하게 되면 五臟이 精을 제대로 갈무리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체내 陰陽의 不調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 4) 河間 火熱論의 臨牀的 運用

이상에서 현대에 다발하는 질병과 현대인들의 섭생에 관하여 論한 결과 모두 陰陽의 부조화가 심각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陰精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그에 따라 陽火가 치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楊力은 火熱의 病機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

131) 朴贊國, 한의학특강, 上揭書, pp.145~149.

132) 朴贊國, 한의학특강, 上揭書, pp.134~138.

생물인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추세에 있고, 溫熱性 疾病이 傷寒性 疾病을 훨씬 앞지르는 현대의 상황에 중요한 개발가치가 있다고 하여<sup>133)</sup> 현대에서 火熱病機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대의 상황은 河間이 활동하던 시기의 火熱이 사람들 사이에 대유행하던 것과 결론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河間의 시기에는 火熱이 전쟁으로 인한 情志의 동요, 좋지 않은 주거환경, 大熱한 藥의 과다복용 때문에 발생하였다면, 현대에는 무절제한 攝生, 과도한 stress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河間은 中風은 일상 생활을 함에 있어서 衣服飲食·居處性情의 마땅함을 따르지 않고 常道를 잃음이 오래 되던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 기전은 心火가 暴甚하고 腎水가 衰弱하여 制約이 안되면 心神이 昏冒하고 筋骨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喜怒哀悲恐의 五志가 過極함으로 인하여 熱이 鬱하는 것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河間이 中風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心火는 바로 현대의 stress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인들의 腦卒中 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를 서양의학에서는 stress로 들고 있음을 볼 때 中風의 원인에 관한 河間의 관점은 현대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中風의 치료법으로 河間은 除風散結의 방법을 응용해야 한다고 하여 寒藥으로 하하여 鬱滯를 유통시키고, 그 후에 風熱을 물리치면서 結滯를 푸는 寒藥으로 조리하여 熱이 물리나고 鬱結이 풀어지면 風病이 낮는다고 설명하였다<sup>134)</sup>. 范永升은 河間이 제시한 방제 중에서 中風에

사용하는 方劑를 설명하면서 “至寶·靈寶는 中風 閉證에 開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當歸龍薈丸은 中風에 肝火가 上衝한 경우에 ‘急則治其標’하는 원칙으로 사용하는 瀉火劑이고, 防風通聖散은 中風의 성질이 內에 熱積이 있고 腑實한데다가 외부로는 風寒表證을 끼고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 地黃飲子는 中風의 緩解期에 肝腎陰陽이 虧損하여 舌暗足廢한 경우의 補하는 방제이다”<sup>135)</sup>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방제들은 현대에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투여하고 있는 방제이므로 河間의 이론이 현대에까지 실용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河間은 消渴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臟腑의 모든 氣에 있어서 腎水를 홀로 寒하게 해서 안되고 心火를 홀로 熱하게 해서 안된다고 하고, 모든 臟腑의 氣는 和平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孤陰은 長하지 않고 獨陽은 盛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河間이 陰陽의 平衡을 유지시키는 것을 治法의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다<sup>136)</sup>.

이러한 河間의 病因·病機는 현대에 다발하고 있는 뇌졸중이나 消渴의 원인을 서양의학에서 과도한 정신 자극과 비만, 그리고 각종의 체내에 火熱을 올리는 기후나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상당한 실용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河間이 대부분의 질병에서 寒藥을 多用한 것은 그가 몸을 차갑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체내의 陰陽 平衡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때 그의 치료관이 현대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楊力은 현대에 다발하는 溫病·流行病 AIDS 등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火熱의 病機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五運行大論」 “故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 寒暑六入, 故令虛而生化也”

散風熱鬱痺之寒藥也. 凡治風熱結滯宜戒熱藥過甚.

135) 范永升, 河間論中風의 見微知著, 遼寧中醫雜誌, 1981, 5期, p.2.

136) 劉河間, 三消論, 上揭書, p.310. “凡臟腑諸氣, 不必腎水獨當寒, 心火獨當熱, 要知每臟每腑, 諸氣和同, 宣而平之可也. 故余常謂五常之道, 陰中有陽, 陽中有陰, 孤陰不長, 獨陽不成, 但有一物皆備, 五行遞相濟養, 是謂和平”

133) 楊力, 上揭書, p.71.

134) 劉河間, 原病式, 上揭書, pp.733~734.

『原病式·火類』 暴病暴死火性疾速故也. 斯由平日衣服飲食, 安處動止, 精魂神志, 性情好惡, 不循其宜而失其常, 久則氣變興衰而爲病也. 或心火暴甚而腎水衰弱不能制之, 熱氣佛鬱, 心神昏冒, 則筋骨不用, 卒倒而無所知, 是爲僵仆也. …凡人風病多因熱甚, 而風燥者爲其兼化, 以熱爲其主也. 俗云風者, 言末而忘其本也. 所以中風癱瘓者, 非謂肝木之風實甚而卒中之也, 亦非外中于風爾. 由乎將息失宜 而心火暴甚, 腎水虛衰不能制之, 則陰虛陽實, 而熱氣佛鬱 心神昏冒, 筋骨不用而卒倒無所知也. 多因喜怒哀悲恐之五志有所過極而卒中者, 由五志過極皆爲熱甚故也. …若始覺風熱鬱結于表而裏尚平未傳也, 或以寒物佐之亦佳. 如至寶丹治風痺, 雖用硫黃鐘乳木香桂心之類辛熱, 是亦能令開結也, 佐以牛黃腦子苦麥芒硝之類寒物, 以使結散而無佛鬱也. 況至寶丹乃

의 문장을 인용하고, 이 문장의 의미가 火邪는 일년 사계절에 모두 유행하여 溫病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風化燥化濕熱寒化와 같이 六氣와 兼化될 수 있으며, 寒濕(陰性인 六氣)과 風熱燥(陽性인 六氣)의 관계에서 핵심 작용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하였다<sup>137)</sup>.

#### IV. 考察

運氣學은 古代 중국이 농경 중심 사회였으므로 발생하는 기후를 미리 예측하여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의 氣候 變化와 天文을 관찰한데서 비롯하였다. 이후에는 고대인들이 자연변화를 五行이나 六氣와 같은 이론적 체계로 재해석하면서 運氣學은 점점 토대를 갖추기 시작하게 되었다. 『內經』의 早期篇章 시대에는 시간의 개념과 의학을 접목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運氣七篇』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運氣說이 거의 완성된 형태로 한의학에 드러나게 된다. 『運氣七篇』은 王冰의 이전까지 『內經』에서 亡失된 것이었는데 唐代에 王冰이 이를 補入함으로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運氣學說은 당시까지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으므로 불과 수백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運氣七篇』의 글이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어렵게 되어 있어서 당시 일반 의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王冰 이후로 劉溫舒가 『運氣論奧』를 저술하기 전까지 運氣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北宋 때에는 劉溫舒가 『運氣論奧』를 지어서 運氣의 용어와 이론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의사들이 그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運氣理論을 지지하였으므로 運氣理論은 대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運氣學說이 성행하게 되었으나 運氣學說의 정수를 깨달은 사람은 적었으므로 당시의 의사들 중에서 或者는 運氣를 이용한다고 하여 干支에만 집착하여 行鍼用藥하거나 或者는 運氣의 說은 惑世誣民하는 것이라고 하여 배척하거나, 어떤 사람은 運氣의 이론이 어렵다고 하여 아예 익히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河間은 당시에 유행하던 疾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과거 『傷寒論』에서 적용하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는 經典을 研究하고, 그것을 실제 임상에 결합하여 새로운 病機論과 治法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이 主火論이다. 河間은 그 이론적 근거를 運氣論에서 취했다고 하였고, 運氣學이 한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의사들이 聖人들의 經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運氣書를 짓거나, 干支를 이용하여 處方用藥하는 데는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河間은 의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五運六氣로 보아서 運氣를 알면 마치 그물의 버리를 잡는 것과 같아서 의학의 이치를 쉽게 깨달을 수 있지만 모르면 의술의 요점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질병의 발생이 단지 寒暑燥濕火風의 六氣가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六氣 중에 盛하거나 虛한 것을 조정하여 平衡을 맞추어주면 된다고 하였으며, 運氣의 도리는 질병의 정확한 진단에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병이 危極한 지경에 이르면 나타나는 假證은 五運六氣로 파악하면 쉽게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河間 運氣論은 어디에서 연원하고 있는 것인가? 河間은 『原病式』, 『要旨論』 등의 서적에서 『本草』, 『太始天元玉冊』, 『傷寒論』, 『仙經』 등의 서적을 광범하게 인용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학설이 나오게 된 기초이고 그의 著書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언급되고 있는 『內經』이다. 그러나 河間은 『原病式』, 『保命集』 등의 序文에서 河間은 자신이 『內經』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運用面에 있어서는 『內經』의 문구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그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학술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劉河間은 『保命集』에서 자신이 雙解散防風通聖散과 같은 辛涼한 方劑를 만든 목적이 張仲景의 溫熱한 方劑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仲景의 시대와 자신의 시대가 달라서 運氣와 사람들의 攝生이 다르므로 새로운 治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sup>138)</sup>. 運氣에서 干支體系는 漢代에 공식적으로 반포되어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 원리는

137) 楊力, 上揭書, p.186.

138) 劉河間, 保命集, 上揭書, p.11.

十干과 十二支가 서로 배합되어 60년을 1주기로 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순환체계이다. 따라서 干支 면에서 본다면 仲景시대의 干支와 河間 시대의 干支가 다를 리가 없다. 그렇다면 河間의 발언을 논증할 때 그가 말한 運氣가 干支를 고식적으로 적용하는 運氣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內經』의 『運氣七篇』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干支와 관계하여 天符·歲會·同天符·同歲會 등과 司天之氣·在泉之氣·主氣와 客氣의 加臨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만일 『內經』의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면 『內經』의 運氣 이론이 干支에 국한된 運氣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內經』의 『五運行大論』에서는 天地陰陽은 數로써 미를 수가 없고, 象으로써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象을 바라보면 비록 먼 것이라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至眞要大論』에서는 時에 常位가 있고 氣에는 반드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였고, 『運氣七篇』의 여러 편에서 運太過之年과 運不及之年으로 歲初에 어떠한 氣가 用事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六元正氣大論』에서 歲初에 어떠한 氣가 用事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정월 첫날의 새벽에 들판에 나가서 그 존재하는 氣를 잘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內經』의 다른 부분에서는 運氣를 기계적으로 추산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임을 인식하고 運氣의 고정적인 推算을 경계하는 글을 실었음을 알 수 있다. 張景岳 같은 이도 “運氣를 읽은 자는 마땅히 하늘의 이치에 어떠한 干支에 해당하는 날에 반드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 내가 運氣의 지식이 있던 이후로 항상 五運六氣를 이용하여 氣를 추측해 보아도 열 중에 7, 8 정도만 부합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고, 汪省은 “運氣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하나의 단서로써 말한 것이니 어찌 이 방법에만 집착하여 그 외의 法은 돌아보지 아니하는가? ... 의사들은 반드시 氣機의 변화를 따르고, 때에 맞게 생활함으로써 古人들이 미처 발설하지 아니한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sup>139)</sup>라고 하여 運氣의 기계적인 운용을 경계하였다. 河間도 運氣

의 이러한 한계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의 著作을 살펴보면 『傷寒直格』, 『要旨論』에서는 『運氣七篇』에서 설명한 干支를 이용한 기후의 예측이나 질병상황·治法 등과 天府·歲會·太乙·天符 등의 각종 運氣知識을 상세하게 論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著作인 『宣明論』, 『保命集』, 『原病式』, 『三消論』에서는 干支와 관련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이다. 더욱이 『要旨論』에서는 干支로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治法을 결정하고 预后를 말하는 것의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방법은 聖人들의 취지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狂惑케 하는 점술과 같은 것이지 의학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만일 병의 吉凶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그 氣의 虛와 實을 파악하고, 運의 太少를 밝히고, 어떠한 氣가 勝復했는지를 관찰하고, 主氣와 客氣의 움직임을 窮究하며, 病의 標本과 그 病이 六氣 중에서 어떠한 氣로 인해서 발생하였는가와 그 氣의 虛와 實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의 運氣說은 干支의 고정적인 운용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五運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서 스스로 우주가 변화하는 법칙을 발휘하는 것이며, 六氣란 것은 五運의 운동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

五運이 六氣로 구현하게 되는 데에는 일정한 시간의 순서에 따른 규율이 존재한다. 그 규칙은 한 기간이 끝나면 用事하던 氣의 작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한 기간에는 하나의 氣가 다른 다섯 氣를 대표하여 변화를 주재하는 것이다. 六氣가 지상에 작용하는데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식물·사람·흙·물·바람 등의 모든 자연요소가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六氣는 각각 60일 87.5刻 씩을 主宰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우주적으로 보면 태양 흑점의 폭발, 태양계를 순환하는 혜성의 운동, 지축의 이동 등이 있고 지구 내에서도 화산폭발, 심각한 대기오염, 전쟁, 삼림의 파괴 등의 요인이 작용한다. 이러한 것들은 六氣가 지구에 1/6 씩의 정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임이 분명하다. 어떤 원인이든지 정상을 떠져 못한 六氣가 지구에 작용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는 정상적인 六氣가 작용하던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한 기간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변화를 五運六氣로

139) 盛國榮·白介辰, 上揭書, p.1 - 再引用.  
“運氣一書. 古人啓其端, 豈可徒其泥法, 而不求法外之遺也. ... 務須隨機達變, 因時識宜. 庶得古人未發之旨, 尙能從其言之妙也”

개괄하기 위해서라면 주위의 변화사항을 잘 살펴서 어떠한 氣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하나의 특정한 運氣가 지배하는 시기나 공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변화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간의 변화에 따라 溫熱涼寒의 변화가 생겨 계절이 春夏秋冬으로 바뀌는 것은 그 각각의 기간에 用事하는 氣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정상적인 運氣이든 비정상적인 運氣이든 시간에 그것이 지구에 작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지상에 구현되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변화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써 자연 현상과 질병을 파악하는 중요법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이러한 원리는 仙家에서 바람이 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뭇가지의 끝을 보면 된다고 말하는 것과 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仲景이 溫熱한 藥物方劑를 選用하고 河間이 寒涼한 藥物을 選用한 원리가 설명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仲景의 시대나 河間の 시대나 공히 60년을 주기로 일정한 干支가 작용하였으나 그 실제로 발생한 질병에 미쳐서는 仲景의 시대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이든지 외부의 寒邪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많았으며, 河間の 시대에는 上述한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火熱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많았던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원리는 六氣라고 할 수 있으므로 運氣學에서는 六氣를 본이라고 하고, 六氣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변화를 標이라고 하고, 그것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三陰三陽이라고 하였다. 河間은 질병을 파악함에 있어서 모종의 氣가 작용하여 일으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標本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河間은 多年간의 임상경험을 통하고, 자연을 관찰하여 당시의 자연이나 인체에 발생한 질병에 火熱의인 요소가 많다고 파악하였다. 『原病式』의 序文에는 河間이 『內經』의 277字 즉, 『至眞要大論』의 病機十九條를 論한 부분에서 起因하여 『原病式』을 저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후세의 학자들도 『原病式』에 설명된 질병은 『內經』에서 기술된 질병으로 河間이 그것을 五運六氣 病機의 원리에 따라 재배열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原病式』이나 기타의 서적에 서술된 질병을 火熱의인 원리로 설명한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그 질병들을 살펴보면 당시 의학계에서 이미 火熱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인식되던 것은 물론이고 분명히 火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던 것을 河間은 火熱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예로는 白帶下瀉黑癩疔 등이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일반적으로 河間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火熱 이외의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河間이 당시의 醫論을 무시하고 火熱의인 원인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로 臨床에서 이러한 병에서 火熱의 형상을 많이 보았고, 寒涼한 약을 사용한 결과 많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이론이 당시에 학계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치료면 이외에도 논리적인 이론이 뒷받침되어야만 하였다. 그래서 동원된 것이 亢害承制論이다. 대개의 후대 醫家들은 河間 運氣病機 理論의 핵심을 火熱 이외의 四氣도 佛鬱하면 火로 변화할 수 있다는 ‘六氣皆從火化’ 이론과 喜怒思悲恐의 五志가 過極하면 모두 火熱의 형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五志過極皆爲熱病’ 이론으로 보는데, 그리 많은 힘수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病機理論의 가장 난해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亢害承制論이므로 病機學에서 亢害承制論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河間의 病機는 火熱을 중심으로 한 六氣病機라고 할 수 있는데, 河間은 六氣病機 중에 燥病機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으니 그가 『內經』 病機論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燥病機는 河間 病機學說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至眞要大論』의 病機十九條에는 없는 것으로 河間은 『原病式』, 『宣明論』, 『保命集』, 『三消論』 등의 서적에서 그 발생부터 치료까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宣明論』과 『保命集』에서는 “經曰, 諸澁枯涸, 乾勁皴揭皆屬於燥”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제 『內經』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가 燥病機를 중요시함이 다른 五氣의 病機와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다. 河間은 燥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六氣를 陰과 陽으로 구별하여, 風熱火는 모두 陽이고 寒濕燥는 모두 陰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金燥는 비록 秋陰에 속하지만 그 성질은 寒濕과 다르고 도리어 風熱火와 같다고 하여 燥邪가 비록 陰에 속하는 것이나 火熱과 연관되는 면이 많

다고 하였다. 또 燥病이 오직 火熱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파악하여 만일 寒病에 吐利하여 津液을 亡함이 지나치게 極하면 또한 燥하고 渴하는 燥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燥에 관한 독창적인 설명은 후대의 醫家들이 六氣病機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河間은 運氣論을 논술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病機만을 제시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六氣의 변화가 사람에게 작용하면 그 변화에 따라 생리적인 혹은 병리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이고 생리적인 변화는 정상 脈象의 형태로 나타나며, 병리적인 변화는 비정상적인 脈象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것을 파악하면 질병을 판단, 치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의 六氣의 변화에 따른 脈象의 변화를 진단하는 원칙은 『內經』에 이미 기술되었던 것이지만 河間은 그것을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식적인 五行의 剋制關係에 얽매이지 않고, 前後의 氣運과 臟腑의 상태와 연관짓는 보다 합리적인 형태의 六氣 脈診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處方用藥의 사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가 때의 변화, 즉 작용하는 運氣의 변화에 따라서 因時制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가 실제로 藥物을 사용하는 경우에 전혀 干支를 이용한 방법으로 藥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직 때와 관계하여 藥物을 응용한 것은 비교적 큰 시간의 단위인 六氣가 主하는 기간이나, 춘하추동의 4季的 변화에 따른 藥物의 운용 방법을 설명하였을 뿐이다. 이는 河間이 실제 임상을 하는데 있어서 당시에 유행하던 干支를 계산하여 處方用藥하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대단히 실증적이고 합리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사람은 자연계에서 태어나고 자연계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로 사람이 곧 자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산업혁명 이래로 사람의 경제활동 영역은 그 전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져서 그와 비례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고, 기타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지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

기오염이 있는데 그 주 오염원은 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황산화물·분진 등이다. 이들 오염물질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호흡기에 작용하여 천식이나 폐암·알레르기 등의 원인 물질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거나 오존층을 파괴하거나 지구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는 등의 이차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중에 스모그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이 물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호흡기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들 오염물질이 肺로 들어와 肺의 津液을 말리고 폐의 기운을 약하게 하여 천식이나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기오염 물질 중에 프레온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이 경우 오존층이 하던 자외선의 차단효과가 약해져서 피부암이 다발하거나 증가된 자외선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염색체변성이나 지방변성,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유발된다. 이러한 병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오염물질로 인해서 體内に 陰이 虛해지고 陽이 亢盛된 상태가 유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온실효과 등으로 인하여 지구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일으키는 기상이변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최근 엘니뇨가 다발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엘니뇨란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동태평양 적도지역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엘니뇨 발생시에는 일반적으로 인도 몬순이 활발하지 못하고 필리핀·인도네시아·호주 북부 등 서태평양 적도 연안국가에서는 심한 가뭄현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화남 및 일본 남부 등 아열대 지역은 잦은 홍수의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 중국 북동부의 반건조 지대에서는 小雨가 되기 쉽고, 동아시아에서는 여름철에는 저온이 되기 쉬우며, 겨울철에는 고온이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엘니뇨와 전염병의 발생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 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입증은 없으나 보건학적으로 엘니뇨가 빈발하는 요즈음에 와서 홍역, 말라리아가 폭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기상이변과 급성열성병인 溫病과의 관계를 『內經』 시대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溫病에는 風溫·春溫·暑溫·伏暑·秋燥·瘧疫·溫毒·濕熱 등이 있는데, 이들 질병은 서양의학의 뇌염·뇌막염·뇌척수막염·편도선염·폐렴·기관지염·유행성감기·백일해·장티푸

스·발진티푸스·파라티푸스·성홍열·콜레라·유행성간염·홍역·유행성출혈열·AIDS·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등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40)</sup>. 더욱이 河間은 특히 火熱論을 주장하여 溫病學派의 鼻祖가 되니 河間の 학설과 溫病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대는 성인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성인병의 대표가 되는 질환으로는 당뇨·뇌졸중 등이 있다.

腦卒中은 張仲景이 外感病을 뜻하는 中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온 이래로 여러 醫家들이 그 病機를論하고 분류하였으나, 河間이 中風의 원인을 心火의 暴亢, 腎水의 衰弱이라고 말한 이래로 많은 醫家들이 그의說을 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30대·40대의 中風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대부분 stress로 추정하고 있음을 볼 때 河間の 原因說이 더욱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고혈압·비만도 모두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면 인체 내부에 氣의 갈무리를 담당하고 있는 精의 기능이 파괴되어 부모에게서 받은 先天之精, 水穀에서 보충 받은 後天之精 할 것 없이 모두 소모되었으나 陽氣는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

中風의 치료법으로 河間은 除風散結의 방법을 응용해야 한다고 하여 寒藥으로 下하여 鬱滯를 유통시키고, 그 후에 風熱을 물리치면서 結滯를 푸는 寒藥으로 調理하여 熱이 물러나고 鬱結이 풀어지면 風病이 낫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消渴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腎水を 홀로 寒하게 해서는 안되고, 心火를 홀로 熱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하고 모든 臟腑의 氣는 和平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즉 孤陰은 長하지 않고, 獨陽은 盛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河間이 陰陽의 平衡을 유지시키는 것을 治法의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다<sup>141)</sup>.

이러한 河間の 치료원칙은 현대에 다발하고 있는 성인병의 원인을 陰陽의 不調和 중에서도 陰虛하고 火熱이 盛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현대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河間이 당시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內經』과 『傷寒論』의 治法을 연구하고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취

하여 火熱論을 주장하였던 것처럼 현대에는 반드시 河間の 시대와 비교하여 運氣가 바뀌었을 것이고 攝生도 달라졌을 것이며, 특히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각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니 임상에서 河間の 이론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먼저 현재의 기후, 사회상, 질병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六氣의 변화상을 잘 파악하여 因時制宜·因人制宜·因地制宜하는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V. 結論

1. 『內經』에서는 시간적인 요소가 의학의 生理·病理·治療와 실제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運氣論이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運氣七篇』에 와서는 運氣學의 이론적인 형태를 거의 완성하게 된다. 宋·金·元에 이르면 醫學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運氣理論이 중시되어 더욱 발전하였고 河間の 시대에 이르러 이를 이용한 여러 醫論이 발표된다.
2. 河間の 시대에는 아예 運氣를 공부하지 않거나 고식적으로 運氣를 運用하여 處方·用藥하고 그說을 세상에 전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었다. 河間은 運氣는 세상의 변화와 疾病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로 의사라면 반드시 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運氣가 가지고 있는 참 뜻이 고식적으로 干支를 運用하는데 있지 않다고 당시의 運氣를 운용하는 풍조를 비판하였다.
3. 河間은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疾病을 해결하는데 과거 『傷寒論』의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經典을 연구하고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여 당시에 主歲하는 氣運과 민간에 유행하던 질병이 대개 火熱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실제 임상에 응용하여 火熱을 위주로 하는 病機와 治療觀을 세웠다.

140) 崔三變, 上揭書, pp.89~98.

141) 劉河間, 三消論, 上揭書, p.310.

4. 河間은 火熱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사물을 비교하여 다른 하나의 象을 세우는 比物立象의 방법과 자연의 六氣 중에서 하나의 氣가 過亢하면 반드시 그것을 剋制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전체적인 恒常性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亢害承制論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또한 河間은 발생한 疾病의 본질을 파악해야 함을 중시하여 標本의 이론을 강조하였다.
5. 河間은 실제적인 觀察과 臨床에서 근거하여 病機十九條에는 없던 燥病機를 추가함으로써 『內經』의 病機理論을 보충하였으며, 運氣論을 실제 脈診用藥 方면에 사용하여 運氣를 실제와 결합하는 모범을 보였다.
6. 현대는 각종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변화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이다. 따라서 河間이 金元時代에 제시하였던 것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運氣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7. 현대에 존재하는 각종 기상이변과 급증하는 성인병의 裏面에는 火熱의 象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대에 존재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河間의 理論을 窮究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權依經, 五運六氣學 해설, 서울, 法仁文化社, 1996.
6. 기상청 장기예보과, 1997/98년 엘니뇨와 한반도 기상 특성, 기상청, 1998.
7. 김영석, 임상중풍학, 서울, 서원당, 1997.
8. 김인택 외, 토종의학 암 다스리기, 서울, 태일출판사, 1997.
9. 金海秀, 運氣學講義錄, 서울, 朝鮮基督教敎文社, 1928.
10. 羅天益, 衛生寶鑑, 香港, 商務印書館, 1981.
11. 래스터 브라운, 지구환경보고서 1998, 서울, 도서출판 따님, 1999.
12. 孟慶云, 論〈內經〉運氣學說對中醫理論的貢獻及其局限性, 河南中醫, 1981, 5期.
13. 박정규, 엘니뇨 발달과 세계 기후변화, 엘니뇨 workshop 발표집, 기상청, 1997.
14. 박정규, 엘니뇨와 이상기후, 이상기후 workshop, 기상청, 1999.
15.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注釋,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16. 朴贊國, 한의학특강, 서울, 한뜻출판사, 1995.
17. 白南喆, 五運六氣學(理論과 實際), 서울, 翰林醫學社, 1979.
18. 范永升, 河間論中風的見微知著, 遼寧中醫雜誌, 1981, 5期.
19. 謝文光, 六氣淫勝治則及制方規律初探, 江西中醫藥, 1992, 23卷, 2期.
20. 宋哲鎬, 河間的 生涯와 醫學思想, 서울,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2.
21. 안병희, 각종 질환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활성 산소, 임상약학, 1994, No.5, Vol.14.
22. 楊力, 中醫運氣學, 북경,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23. 連維眞, 從嬰兒出生時間和性別探討〈內經〉天人相應規律, 遼寧中醫雜誌, 1990, 3期.
24. 王琦 等, 運氣學說的研究与考察, 北京, 知識出版社, 1989.
25. 王冰,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5.

### 參考文獻

1. 葛雍 篇,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傷寒直格, 서울, 大星文化社, 1995.
2. 姜福秀 等, 豫防醫學과 公衆保健, 서울, 癸丑文化社, 1991.
3. 강인식, 엘니뇨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엘니뇨 workshop 발표집, 기상청, 1997.
4. 龔純·馬堪溫, 民間醫生劉河間, 북경, 中華醫史雜

26. 王玉川, 干支紀年与五運六氣, 북경, 北京中醫學院學報, 1991, 14卷, 1期.
27. 劉樹農, 劉河間學說管窺, 上海, 上海中醫藥雜誌, 1963, (2).
28. 俞慎初, 河間學派開山-劉河間, 福建中醫藥, 1982, 4號.
29. 劉溫舒, 素問入式運氣論奧(正統道藏 中在), 서울, 法仁文化社, 1994.
30. 劉河間, 素問要旨論(河間醫集 中在),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5.
31. 劉河間,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三消論(儒門事親 中在),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2. 劉河間,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宣明方論,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3. 劉河間,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素問病機氣宜保命集,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4. 劉河間,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素問玄機原病式, 서울, 大星文化社, 1995.
35. 윤성호, 엘니뇨현상과 농업, 엘니뇨 workshop 발표집, 기상청, 1997.
36. 尹暢烈, 運氣學說의 기원에 대한 研究, 서울,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9, Vol. 12, No.1.
37. 李文海-彭增福, 運氣學說研究之回顧, 北京中醫學院學報, 1992, 15卷, 3期.
38. 李仁述, 劉河間大小運氣儀, 中醫藥學報, 북경, 1984, 2期.
39. 이철완, 기후 변화와 노인 건강, 기상이변(EI Nino)과 한방건강 seminar 논문집, 1998.
40. 李聰甫 等,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서울, 一中社, 1983.
41. 任應秋, 論河間學派, 浙江中醫雜誌, 1964, 6號.
42. 張其成, 援易入醫 以易訓醫, 醫古文知識, 1994, 總 43期, No.3.
43. 張永錫, 五運六氣와 四象醫學, 부여, 大成印刷社, 1980.
44. 張向群, 淺論“時不可違”和“舍時從證”, 北京中醫學院學報, 1993, 16卷, 1期.
45. 褚澄, 欽定四庫全書 醫家類 褚氏遺書, 서울, 大星文化社, 1995.
46. 田文劉, 腦梗塞發生運氣節律与氣象天文相關性初探, 山東中醫學院學報, 1991, Vol 15, No.6.
47. 田維霖, 三十五年來運氣學說研究概況, 浙江中醫雜誌, 1986, 8月號.
48. 趙學俊-尹暢烈, '亢害承制論'의 發展過程과 意味에 대한 諸家說의 研究, 서울, 원전의사학회지, 1998, Vol. 11, No.1.
49. 宗全和, 從『素問玄機原病式』看劉素問的學術思想, 山東中醫學院學報, 1981, (1).
50. 陳照甫, 論劉河間的臟腑六氣病機說, 上海中醫雜誌, 1982, 6期.
51. 陳和亮, 劉素問學術思想近三十年研究概況, 上海中醫雜誌, 1988, 10期.
52. 天竺啓祐 原著, 지구를 파괴하는 범죄자들, 서울, 푸른미디어, 1999.
53. 최삼섭, 기상이변이 유발하는 질병과 한방치료, 기상이변(EI Nino)과 한방건강 seminar 논문집, 1998.
54. 최승훈, 동의중양학, 서울, 행림출판, 1995.
55. 한국업존 학술부, 각종 질환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활성 산소, 임상약학 No.6, Vol.14, 1994.
56.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杏林出版, 1993.
57.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東洋醫學研究所出版部, 1995.
58. 洪元植, 校勘直譯 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59.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所, 1984.

